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포커스
2022년

다성적 주체의 서사와 실천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포커스
2022년

다성적 주체의 서사와 실천

CONTENTS

<아젠다 기획>

동시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이모 표상의 의미망

친족성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정미선) 04

공서(共棲)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및 이종(異種)을 중심으로(한의승) 14

19세기 일상생활의례의 실천을 통한 애경(愛敬)의 구현

류종교의 사친삼의를 중심으로(박미선) 21

<통계동향>

인포그래픽 - 돌봄과 주체 30

돌봄과 주체(김희송, 추주희) 31

<정책보고서 리뷰>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 39

한국노동연구원(2022),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에 관한 연구 41

* 「가족커뮤니티 포커스」는 가족커뮤니티 국가전략 수립에 기여하고자 국내외의
인문기반 다학문·융복합 가족 연구를 소개하고, 관련 사회 정책 동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 포커스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문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인 정미라

발행처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주소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3호관

전화 062-530-3234 팩스 062-530-5219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아젠다 기획

- 동시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이모 표상의 의미망
친족성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정미선)
- 공서(共棲)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및 이종(異種)을 중심으로(한의승)
- 19세기 일상생활의례의 실천을 통한 애경(愛敬)의 구현
류종교의 사친삼의를 중심으로(박미선)

* 기존의 가족 관련 정책, 제도, 담론에 대한 인문학적 진단과 함께
'가족커뮤니티인문사회'의 도약을 위한 인문학적 의제를 발굴하는 기획논문을 소개한다.

* 아젠다 기획논문은 개별 연구자가 향후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요약입니다.
인용을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시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이모 표상의 의미망: 친족성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¹⁾

정미선(전남대 인문학연구원)

1. 서론

이 글은 동시대 한국소설에서 새로운 인물형으로 부상하는 ‘이모’의 서사적 형상에 주목하여, 이모의 발견과 창안의 의미망을 탐색한다. 이모는 사전적 의미에서 혈연/법적 친족 내 어머니의 자매를 부르는 호칭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모라는 표현들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 쓰이는데, 특히 한국사회에서 이모는 독특한 용례로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이모는 중년의 서비스직 노동자 여성을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쓰이며, 이모팬·개이모·랜선이모 등의 표현은 발화자 여성의 연령대에 대한 표지값을 드러내기도 한다. 오늘날 호칭으로서의 이모는 혈연적 친소관계 표지에 성별, 나이, 친밀한 정도와 심리적 거리 등을 포괄하는 관계성의 정보를 사상하여 확장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친족적 표현이다.

그런데 동시대 문화 속에서 이모는 표상으로서의 용례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시대 페미니스트 담론 장에서 ‘언니’가 ‘영페미’의 세대적 위치성을 지시한다면, ‘자매’는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세대 내 관계를 지시함으로써 친족적 어휘를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이모’는 동시대 이후를 살아갈 다음 세대 여성들과의 관계성을 사상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새롭게 부상하는 이모는 특히 모종의 ‘돈 많고 이상한 이모’로 표상되는 여성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때 이모를 수식하는 ‘돈 많고’는 생계부양자-커리어우먼을, ‘이상한’은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보유한 독신 혹은 레즈비언 여성으로서의 맥락을 지칭함으로써 동시대 페미니스트 자아의 아이콘 또는 롤모델로서 기능한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이모는 기이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모는 여성 간 관계성에 대한 위치설정 뿐 아니라 젠더화된 노동, 나이듦의 자의식, 유사모성 또는 증여적 존재로서의 의미, 이상적 여성상, 페미니즘을 경유한 여성 정체화와 같은 다양한 의미망이 중첩

1) 이 글은 한국가족학회와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이 공동개최한 2022 “가족 다양성의 확대와 새로운 가족 인식” 학술대회에서 발표 및 『문화와융합』 제44권 12호(2022. 12. 30.)에 게재된 논문 「동시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이모 표상의 의미망—친족성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를 요약한 것이다.

되고 혼성되어 쓰인다. 우리는 수많은 이모들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자신이 이모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하필 (고모는 아니고) 이모인 것일까?

이 글은 동시대 한국소설에서 이모들이 빈번하게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소설들에서 발견되는 이모 표상을 둘러싼 서사를 여성가족사소설과 여성성장소설이라는 한국여성소설사의 주제론적 계보와 관련지어 독해한다. 여성, 혈연/법적 친족, 집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계보에서 이모는 한국여성소설사의 타자이다. 즉 이모는 동시대 한국소설의 장에 등장한 이례적 인물형인 동시에, 징후적 새로움을 보유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논제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두 차원에서 동시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이모 표상의 발생 맥락과 서사적 의미망을 규명한다. 첫째, 이모 표상은 페미니즘 운동의 대중화 흐름 속 여성의 위치성에 대한 인식적 확대에 동반되는 혈연/법적 친족의 확장적 다시쓰기가 부계 중심 직계 가족 서사를 여성가족사소설로 재구성하는 가운데, 혈연/법적 친족 내 여성 간 관계성의 탐색에서 발견된다고 본다. 이모의 발견을 구성하는 계기성은 혈연/법적 친족성의 규범과 친족 내 여성의 배치 형식에 대한 분석적 시선에 있다.

둘째, 혈연/법적 친족의 범위에서 이탈하는 이모 표상은 동시대 한국소설이 이모라는 인물형을 새롭게 발견함에 따라 분화되고 있으며, 이들의 공통항은 혈연/법적 친족성의 규범에 대한 구성적 외부로서의 가상적 친족성의 구상에 있다. 이는 여성성장소설 모티프를 경유하면서 가상적 친족 내부의 관계원리로서 증여와 정동적 평등을 모의하는 방식으로 여성 간 관계성을 다시 쓰는 데 소요되는 것으로, 대안적 비전과 징후적 의미망을 보유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넬슨(2013)과 마모(2018)가 논의한 반자연화된 친족성(kinship)에 대한 성찰로서 친족성의 형식이 사회적 삶을 조직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친밀성의 배치 방식이라는 점과 함께, 혈연/법적 연결(blood/legal tie)의 과도하게 의미 부여된 중심성과 그에 투사되는 규범성에 주목한다. 또한 이러한 혈연/법적 친족성의 규범과 여성 인물들이 관계맺는 방식 및 세대를 건너 상속되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허쉬(2012; 2016)의 개념을 통한 젠더화된 세대전이적 트라우마와 린치(2016)의 정동적 평등 개념을 활용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은 이모 표상이 혈연/법적 친족에서 이탈함과 동시에 혈연/법적 친족성의 규범에 대한 자연화에 대항하여 다른 회로의 구성에 참여하는 서사들을 통해, 친족에 사상된 문화적 환상에 이의제기하면서 이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이모 표상의 동시대적 의미망과 페미니스트 공중의 마음의 풍경에 대해 전망한다.

2. 혈연/법적 친족성의 임계와 이모의 발견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 서사가 동시대 한국문학 장에서 개진되는 흐름 중 하나는 근대 이후 한국여성문학의 전통적 주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

토를 이행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여성이 위치한 사회적 삶의 젠더화된 각본과 이성애적 드라마에 대한 비판적 탐색은 이의 핵심이며, 여성가족사소설과 여성성장소설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이에 관여한다. 그러나 동시대 서사체들에서 이 재검토와 다시쓰기를 추동하는 것은 증상적 서사에서 분석적 서사로의 이행에 있다. 이들 소설들은 혈연/법적 친족성의 내부지리를 소환하면서 그 친족성의 구성에 매개되어 있는 배치 형태로서의 제도, 생산, 노동, 관계, 감정, 공간, 물질적인 것, 정동체계에 이르기까지의 규범성(normativity)를 비판적으로 탐사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가족사소설에서 배경화되었던 혈연/법적 친족의 구성소로서의 다양한 여성 인물들이 전경화되기 시작한다.

김유담의 「안(安)」(2022a)은 이성애자 기혼 여성인 '나'와 어머니 사이의 대조적 관계에 큰어머니라는 여성 인물이 배치됨으로써 혈연/법적 친족성의 젠더화된 구성에 사상되는 노동, 관계, 정동체계의 규범성을 모의하는 소설이다. 소설의 표제인 안(安)은 집 면(安)자와 계집 녀(女)자가 결합하여 집 안에 있는 여성을 형상화한 것으로, 집 안에 여자가 있으니 편안하다는 뜻을 가진 한자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여성들 자신은 집 안에서 편안한 감정을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 소설에서 '나'는 큰어머니로부터 제공받은 돌봄노동과 사랑노동에 기대어 성장한 인물이다. 이러한 서사세계 설정과 더불어 이 소설 전체에서 '나'의 어머니와 큰어머니는 대조적 인물 구도로 설정된다. 어머니는 정서적 애착과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고 지지하는 어머니노릇(mothering)을 수행하지 않는 대신, 젠더화된 능력주의의 언어를 펼친다. 대조적으로, 큰어머니는 시택에 맡겨진 '나'를 씻기고 입히고 먹여온 존재로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을 제공하는 인물로 보인다.

또한 큰어머니의 인물 형상은 유년시절로부터 '나'의 사랑과 돌봄의 정동체계에 대한 요구를 공평하게 충족시켰을 뿐 아니라, 큰집에 모여들고 의탁하는 모든 혈연/법적 친족들에게 그러한 요구의 충족을 가능케하는 노동과 그에 따른 '왁자지껄하고 따스한 공기'로 지시되는 편안한 느낌, 만족감, 풍성함, 평온함, 웰빙과 같은 정동을 생산하는 데 전적으로 기여한다. '나'는 큰어머니의 정동노동의 수혜자 중 한 명이며, 그렇기에 어머니와 대조적인 무조건적 사랑과 돌봄에 감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혈연/법적 친족 내 사랑과 돌봄의 증여는 그 친족성의 구성에 있어서 '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나'는 '공'과의 결혼생활에서 결혼을 통해 만들어진 혈연/법적 친족의 확장 속에서 며느리의 위치가 되면서 큰어머니와 큰어머니가 만들어낸 '대가족 밥상에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던 풍경'으로부터 기인하는 '왁자지껄하고 따스한 공기'라는 '편안하다(安)'에 사상된 정동노동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이바지 시퀀스는 이의 핵심이다. 큰어머니는 어머니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이렇게 이쁘니 사랑받고 살겠다'고 하면서 결혼에 대한 '나'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인물임과 동시에, 동의 없이 이바지 음식을 한껏 보내 '나'가 시택에서 '환대받고 인정받았다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이는 큰어머니가 나에게 증여한 사랑과 돌봄의 정동노동을 지시한다. 그런데 이 기분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소설에서 '나'의 결혼생활은 임금노동을 하면서 매주 주말을 넘어 종종 평일에 이르기까지 시댁에 가서 '왓지떨고하고 따스한 공기'의 정동을 생산하는 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큰어머니의 위치성에 처한다. 큰어머니는 '나'에게 '나 하나 불편하면 모두가 편하고 웃게 된다. 결혼해서 여자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는 거다'라고 말한다. '나를 보고 배운 착한 아이'라는 큰어머니의 표현은 '나'에게 제공한 큰어머니의 사랑과 돌봄이 증여적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육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이바지 시퀀스는 큰어머니가 '나'에게 베푸는 사랑, 환대, 인정의 조건으로서, 여성이 친족으로부터 사랑받고 환대받고 인정받기 위한 젠더화된 혈연/법적 친족성의 규약이 정동생산자로서 여성의 정동노동의 불평등에 있음을 상기시킨다. 정서적 애착과 물질적 자원을 제공하는 가운데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더 교묘하고 인지하기 어려운 이 정동적 불평등은 혈연/법적 친족성의 젠더화된 구성에 사상되는 정동체계와 노동의 규범성으로서 제출된다.

노동과 정동체계의 규범성이 이와 같다면, 혈연/법적 친족성의 젠더화된 구성에서 관계의 규범성은 '되물림', '되풀이', '되값음'과 같은 술어들을 통해 사상된다. 소설에서 이러한 규범성들에 순치되지 못한 여성들은 소외된다. '나'가 그럼에도 '큰엄마 덕에 모두가 편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여성들은 큰어머니와 같은 정동생산자가 되기를 거부할 지언정, 분위기 깨는²⁾ 외부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한다. 혈연/법적 친족성의 관계적 규범에서 여성가족사소설을 구성하는 여성 인물들은 위에서 언급한 노동과 정동체계의 규범성을 수행할 때에만 조건적으로 사랑, 돌봄, 연대의 정동노동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동시대에 다시 쓰는 여성가족사소설에서 초점화하는 이러한 혈연/법적 친족성의 장에서는 정동체계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뿐 아니라, 정동체계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는 정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또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김유담의 「대추」(2022b)의 외할머니, 백수린의 「흑설탕 캔디」(2020)의 할머니, 강화길의 「선베드」(2020a)에서 외할머니에 대한 돌봄노동 제공자인 이모 등이 사례다. 주변부적 여성 인물들이 동시대 소설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돌봄노동과 같은 정동노동의 영역을 통해서인 것은 중요한 경향성이다.

혈연/법적 친족성의 구성에 사상되는 규범성의 문제에서, 여성 인물들을 친족 내 여성의 형식으로 매핑하는 관계의 규범성은 젠더화된 세대전이적 트라우마를 부른다. 동시대 친족 내 여성의 형식과 혈연/법적 친족성의 규범성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주로 여성 인물을 경유한 여성 주체의 서술적 시각을 통해 매우 자의식적이며 분석적인 방식으로 제시되곤 한다. 박서련과 강화길의 사례는 관계의 규범성으로서 세대를 이어 상속되는 젠더화된 트라우마를 거부하거나, 또는 이를 이해함으로써 해체하는 서사를 통해 관계의 규범성에서 구성적 외부를 탐색하고자 하는 서사다.

박서련의 「곤륜을 지나」(2022)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복-업-인연'의 연결성을 사상하는 시어머니의 세계관에 대한 자영의 모욕감, 그리고 그 모욕감의 정체성을 기술한다.

2) 에린 윙커(2021)의 '킬조이(kill joy)'나 사라 아메드(2017)의 '분위기 깨는 페미니스트'가 언급하는 젠더화된 정동노동에 대해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모욕감은 부계 중심 세대 재생산의 빈 자리에서 만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위치를 인연으로, 부계 중심 혈연/법적 친족성의 구성에서 동일한 주체 위치에 배정되는 여성의 자리를 업으로 해석하는 시어머니의 세계관이 자영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영은 서로를 업으로 호명하며 길이 아닌 곳으로 걸어 곤륜산에 오르면 초월적 세계로 등신할 수 있다는 등의 시어머니와 곤륜의 신화를 채택하지 않는다. 동일시를 통해 운명론적으로 승화되는 혈연/법적 친족성 내 여성 간 관계의 규범성은 끝내 거부된다. 전해진의 「창귀」(2022)에서 볼 수 있듯 오히려 여성의 운명으로 승화되는 세대 전이적 트라우마의 내러티브는 동시대적 감각에서 전혀 통용되지 않는 것이다.

강화길의 「음복」(2020b)은 앞서 언급한 「안(安)」이 '편안하다'를 핵심적 해석소로 삼아 큰어머니를 위시한 혈연/법적 친족성의 젠더화된 구성에 사상되는 노동, 관계, 정동체계의 규범성을 문제삼았던 것과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변경되는 것은 「안(安)」의 큰어머니처럼 '편안하다'의 정동생산자를 대체하는 분위기 깨는 자로서의 여성 형상들의 출현이다. '나'의 결혼에 의한 친족 구성에서는 '고모'가 그러하고 '나'의 혈연에 의한 친족 구성에서는 '어머니'가 그러하다. 그러나 고모의 조카며느리이자 어머니의 딸인 '나'는 그러한 분위기 깨는 자로서의 여성 형상들이 왜 출현하는지에 대한 연원으로서의 정동적 불평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편안하다'의 정동수혜자인 '나'의 남편의 대를 잇는 '고요한 얼굴'의 정체성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혈연/법적 친족성의 구성에 개입하는 규범들과 이에 배치되어 있는 친족 내 여성의 형식에 대해 검토하는 서사체들의 양상은 혈연/법적 친족성의 구성에 개입하고 자연화되는 규범성의 여러 측면에서 사랑, 돌봄, 연대와 같은 노동이 여성 간 관계성에서 증여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는 양상을 그린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노동과 정동체계의 규범성에 근간한 관계적 규범은 젠더화된 세대 전이적 트라우마를 후세대에게 유포하면서 관계의 규범성의 자리에 후세대 여성들을 배치하는 까닭이다. 소설들은 혈연/법적 친족의 내부지리와 혈연/법적 친족성에 사상되는 규범성의 면모들을 모의하여 오늘날 혈연/법적 친족성의 임계를 감각하는 시선을 예각화하면서 그 구성적 외부에 대한 질문을 제출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3. 가상적 친족성의 확장적 탐색과 이모 탐색의 분화

앞선 장에서 살펴본 혈연/법적 친족성의 임계는 동시대 소설들의 서사세계를 혈연/법적 친족의 외부, 즉 혈연/법적 친족성의 규범성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성적 외부로서의 여성 간 관계성을 친족 은유를 통해 형성하는 데 정향하게끔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혈연적 친족과 법적 친족 양자에서 친족성을 구성하는 규범들은 정동노동자로서의 여성과 정동수혜자로서의 여성을 만나지 못하게 하며, 증여적 관계로부터 세대 간 여성들의 연결을 소외시킨다. 가상적 친족으로서의 이모 표상이 등장하게 되는 맥락이 여기에서 도

출된다. 이 장에서는 혈연/법적 친족 외부의 이모들이 등장하는 소설들의 공통항인 가상적 친족으로서 비혈연/법적 친족임과 동시에 가상적 친족성을 구현하는 이모들의 인물 형상을 바탕으로 삼아 가상적 친족 내부의 관계원리로서의 증여와 정동적 평등의 모의 지점들을 분석한다.

우선 김유담의 「연주의 절반」(2022c)은 가상적 친족으로서의 이모가 사랑, 돌봄, 연대의 정동노동을 분유하는 방식으로 여성 간 관계성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한다. 소설에서 핵가족의 공간 분할에 간혀 육아로 고립된 인물인 '나'는 '나'의 노동을 분유함과 동시에 '나'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연주를 '나'의 아이의 이모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나'가 혈연/법적 친족성을 구성하는 재생산 실천에 대한 규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규범적 삶 너머를 상상할 수 없는 순치된 인물이다. 소설의 말미에 '나'는 연주가 비혼출산이 가능한 국가로 이주하여 아이를 가졌음을 알게 되며, 「랜선이모」들을 통해 자신이 연주에 대해 몰랐음을 알게 된다. 이모는 정동노동자로 호명되지만, 이성애적 친족성/친밀성(kinship)의 경제에서 연산되어야만 하는 (그러나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최진영의 『이제야 언니에게』(2019)는 친족성폭력을 겪은 유년 여성인 '나'가 어머니의 삼십년 지기 친구인 '강릉 이모'의 집에서 친족성폭력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친족성폭력을 불미스러운 일이자 분위기 망치는 일로서 망각해버리고자 하는 혈연/법적 친족관계에 대항하여 성장하는 소설이다. 이때 이 소설은 여성성장소설의 전통적인 반성장 모티프를 경유하지만, 친족성폭력과 2차가해의 성적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강릉 이모와 강릉 이모의 집은 '나'의 혈연/법적 친족 관계와 반성장으로 부터 탈출하기 위한 조력자로서 이모의 인물 형상을 호출한다.

이 소설에서 '나'의 친족들은 한 동네에 모여 살며 '나'와 부모도 이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다. 문제는 혈연/법적 친족 내 권력을 보유한 당숙 아저씨가 취약한 미성년자 친척 여자애인 '나'를 그루밍하고 스토킹하여 성폭행을 한 데서 비롯된다. '나'는 이를 알리려 하지만 모든 친족들은 혈연/법적 친족관계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피해사실을 축소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모두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서 부모의 종용하에 합의서를 쓰게 되며, '나'의 친족들은 이 공동체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협한 '나'를 강릉 이모 집으로 이주 또는 배출한다.

그러나 '나'가 쫓겨가듯 이주한 강릉 이모의 집에서 만난 것은 어떠한 혈연 관계도 없는 이모의 사랑과 돌봄이다. 이 소설에서 이모는 '나'에게 증여적 의미의 사랑과 돌봄을 제공하는 정동노동을 행한다. '나'는 이러한 이모의 사랑과 돌봄의 증여 속에서 친족성폭력의 트라우마와 직면하게 되며, 왜 '나'를 비롯한 친족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추방당하고 침묵하게 되는지를 위시한 맥락을 이해하게 된다.

'나'는 이모와 가상적 친족성을 구성하면서 이모의 증여적 정동노동을 통하여 기꺼이 혈연/법적 친족들에게로 가 정동적 압력의 순간을 던지고 '분위기 깨는 자'가 된다. 이 소설에서 이모의 증여적 속성을 갖는 정동노동은 이러한 사랑과 돌봄을 후세대의 어떤 혈연/

법적 친족성도 없는 여성에게 순수증여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러한 증여가 후세대 여성에게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무슨 일 있을 때는 젊고 돈 많은 솔로 이모를 생각해. 두려울 게 없을 것이다'라는 표현은 친족성폭력의 트라우마로부터 열리는 취약한 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강릉 이모가 전해준 말이기도 하면서, '나'의 롤모델이 되어주기도 하는 것이다.

조우리의 『이어달리기』(2022)는 앞선 소설의 이모 표상이 보여주는 후세대 여성과 이모가 구성하는 비혈연적 여성 공동체로서의 가상적 친족성의 관계원리로 도출되는 '증여'를 더욱 노골적으로 강조하는 소설로, 황정은의 「올빼미와 개구리」(2021)와 더불어 서사에 등장하는 이모 표상을 '솔로 이모'를 넘어 '레즈비언 이모'로 분화시킨다. 이 소설은 레즈비언 이모 '성희'가 그의 생애서사에서 삶의 흐름 속 면면에서 만난 어린 여성들에게 각각의 방식으로 사랑, 돌봄, 연대의 정동노동을 증여하는 이야기이다.

각각의 후세대 여성들에게 편지를 통해 전달되는 이 증여적 속성은 그들 자신이 그들의 고유한 생애서사와 성격, 마음의 형상을 경유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소요된다. 이 소설을 레즈비언 이모 판타지로 명명하는 것은 그럴 듯한데, 그럼에도 이를 단순히 허황된 레즈비언 이모 판타지로 명명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 소설이 동시대 페미니스트 공중의 마음의 풍경으로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세대를 건너 이어지는 호혜적 사랑, 돌봄, 연대의 정동체계의 필요성과 상상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황정은의 「올빼미와 개구리」는 가상적 친족으로서의 이모와 가상적 친족성의 대안적 관계원리로서의 증여와 함께 정동적 평등에 대한 관계원리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 이모들은 노년 레즈비언 연인 '천지영'과 '김지금'이다. 그들은 '강영은'을 한때 돌보게 되는데, 강영은은 동반자살을 결심한 부모에게 살해당할 뻔한 생존자 여성이다. 강영은은 다시 부모의 곁으로 돌아간 뒤에도 둘을 이모로 대하며 이따금씩 함께 산다. 이 소설의 이모 표상은 둘의 돌봄을 어릴 적 천지영을 돌봐주었던 레즈비언 연인 '고모들'로부터 강영은으로 이어지는 호혜적 돌봄의 이어달리기로서 구상한다는 점에서 조우리의 소설과 유사하다.

또한 이 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혈연/법적 친족성의 규범에 대한 구성적 외부로서의 가상적 친족성의 관계원리는 정동적 평등과 관여된 면모들이다. 김지금이 있는 병원 내 강영은-천지영 간 대화 시퀀스는 이의 핵심이다. 이 시퀀스는 혈연/법적 친족의 울타리 내부의 재생산 실천을 둘러싼 소요들과 함께 혈연/법적 친족의 울타리를 구성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은 레즈비언 연인의 모습을 대조적 구도로 보여줌과 동시에, 강영은을 통해 '출산율'을 둘러싼 동시대 한국사회의 혈연/법적 친족의 구성과 친족성에 대한 갈등을 서사세계에 소환한다. 여기에서 천지영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후세대 여성인 강영은에게 그 '사랑'은 혈연/법적 친족성의 규범성으로 정렬된 세계가 재생산되는 계기이자 동시에 그 과정으로서의 재생산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 반복을 가리는 정동의 과잉, 마치 「곤륜을 지나」의 시어머니의 세계관이 그러하듯이 아름다운 이데올로기적 환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영은은 동시에 천지영이 말하는 사랑의 증여로부터 만

들어지는 연결을 이해하기에, 이모의 뺨을 가만히 잠시간 그러킴으로써 이를 되돌려줄 뿐이다.

결론적으로, 동시대 서사체들에서 비혈연/법적 친족 관계로 설정되고 동시에 후세대 여성들과 가상적 친족 관계를 맺는 양상으로 공통되는 이모들은 오늘날 혈연/법적 친족성에 대한 여성 주체의 자의식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을 통해 드러난 한계와 모순에 직면하여 대안적 관계로서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이 대안적 관계로서의 이모 표상은 동시대 페미니스트 담론 장에서 호명되는 이모 표상, 즉 ‘돈 많고 이상한 이모’로 함축되는 이모들의 심상을 이어받으면서 독신자 이모, 레즈비언 이모 등으로 분화된다. 그러나 이들 이모 표상은 모두 가상적 친족성의 대안적 관계원리로서 증여와 정동적 평등을 모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여성을 위한 친족성의 형식을 질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동시대 여성 서사의 폭발적 증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요한 흐름 중 하나가 여성 간 관계성을 중심으로 기존 계보를 재편하고자 하는 다시 쓰기의 정동에 있다는 점에 주목할 때, 부계 중심 혈연/법적 친족과 친족성에 배치된 여성의 자리와 여성 간 관계망의 서사적 모의는 이 친족성의 구성에 개입하고 자연화되는 규범성의 면모들을 드러내면서 젠더화된 정동적 불평등과 세대를 이어 상속되는 젠더화된 세대전이적 트라우마를 추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이모 표상은 혈연/법적 친족성의 구성적 외부로서 호명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단지 이 친족성의 구성적 외부로 기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여성 간 가상적 친족성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서사적 경향들로 분화됨으로써 혈연/법적 친족의 연결(tie) 바깥에서 후세대 여성 인물들과 연결되며 증여와 정동적 평등의 관계원리로 나아가는 세대전이적 과정으로 독신자 이모들과 레즈비언 이모들을 배치한다. 이를 통해 동시대 한국소설에서 부상하고 있는 이모 표상은 혈연/법적 친족과 그 친족성에 투사되는 다양한 규범들에 대한 성찰을 모의하는 방식으로 여성가족사소설을 다시 쓰면서, 가상적 친족으로서의 이모를 호출하여 정동적 평등을 구현하는 가상적 친족성의 비전을 여성성장소설 모티프를 경유하여 제출함으로써 여성을 위한 친족성의 형식을 질문하는 동시대 여성 공중의 마음을 징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시대에서 우리는 페미니스트 공중의 분화 속 여성형 친족 어휘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호명되는 시간을 살고 있다. 오늘날 페미니스트 공중의 담론이 ‘이모’를 호명하는 마음의 풍경은 ‘언니’로 불리는 전 세대에 대한 세대론적 분화, 내부의 관계적 약속을 부르는 ‘자매’를 넘어 후세대 여성들에게 ‘이런 세상을 더 이상 물려주지 않겠다’는 어떤 다짐을 징후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을 지도 모른다.

이때 그 다짐은 단순히 무언가를 ‘하지 않음’에 대한 담론을 떠나서, 일상을 매핑하는 친족성/친밀성의 형식들 속에서 누구와 어떻게 어떤 형식의 정동적 연결을 새롭게 구축해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을 넓고 깊게 열어놓는다는 점에서, 동시대 페미니스트 정치의 장에 이모 표상을 비롯한 다양한 관계망들을 호출하는 무한한 계기성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모 표상은 혈연/법적 친족성의 자연화된 문화적 환상에 사상되어 있는 규범들에 대해 질문하면서, 그러한 친족성으로부터 상속되는 젠더화된 세대전이적 트라우마를 끊고 증여와 정동적 평등으로 구성된 가상적 친족성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도착하는 중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강화길(2020a), 『선베드』, 『나의 할머니에게』, 다산책방.
- 강화길(2020b), 『음복』, 『화이트호스』, 문학동네.
- 김유담(2022a), 『안(安)』, 『돌보는 마음』, 민음사.
- 김유담(2022b), 『대추』, 『돌보는 마음』, 민음사.
- 김유담(2022c), 『연주의 절반』, 『돌보는 마음』, 민음사.
- 박서련(2022), 『곤륜을 지나』,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민음사.
- 백수린(2020), 『흑설탕 캔디』, 『나의 할머니에게』, 다산책방.
- 전해진(2022), 『창귀』, 『우리가 다른 귀신을 불러오나니』, 한겨레출판.
- 조우리(2022), 『이어달리기』, 한겨레출판.
- 최진영(2019), 『이제야 언니에게』, 창비.
- 황정은(2021), 『올빼미와 개구리』, 『팔꿈치를 주세요』, 큐큐.

<단행본 및 연구논문>

- 김미연 외(2013), 『한국어문학 여성주제어 사전 1』, 보고서.
- 김영옥(2002), 「90년대 한국 ‘여성문학’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상허학보』 9, 93-120.
- 김은하 외(1995), 「90년대 여성문학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여성과사회』 10, 139-161.
- 사라 아메드(2017),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기』, 이경미 역, 동녘.
- 소영현 외(2019), 『문학은 위험하다』, 민음사.
- 심진경(2015), 『여성과 문학의 탄생』, 자음과모음.
- 윤김지영(2018), 『지워지지 않는 페미니즘』, 은행나무.
- 에린 워커(2021), 『웃어넘기지 않는다—페미니스트 킬조이가 보내는 쪽지』, 송은주 역, 신사책방.
- 장경섭(2018), 「가족자유주의와 한국사회」, 『사회와이론』 32, 189-218.
- 장경섭(2011), 「‘위험회파’ 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과문화』 23(3), 1-23.
- 캐슬린 린치(2016), 『정동적 평등』, 강순원 역, 한울.
- Hirsch, Marianne(2012),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Columbia UP.

- Hirsch, Marianne(2016), “Vulnerable Times”, Butler, Judith(ed.), *Vulnerability in Resistance*, Duke UP, 76-96.
- Mamo, Laura(2018), 「Queering Reproduction in Transnational Bio-economies」, *Reproductive Biomedicine and Society Online* 7, 24-32.
- Nelson, Margaret(2013), 「Fictive Kin, Families We Choose, and Voluntary Kin: What Does the Discourse Tell Us?」,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5(4), 259-281.

공서(共棲)의 대상으로 인정받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및 이종(異種)을 중심으로

한의송(전남대 인문학연구원)

1. 머리말

코로나19로 대표되는 전염병에 의한 전지구적 위기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성취와 발전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류는 전염병의 위협과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역사적으로 증명된 과학적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과학적 대응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언택트로 지칭되는 비대면 생활 방식은 대면 생활이 가지고 있던 평범함 등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이었는지 역설적으로 깨닫게 만들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재난과 위기는 항존했고, 전통시대에는 전쟁, 전염병, 대기근과 같은 것으로 재현되었다. 전쟁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임병양란(壬丙兩亂)’으로 대표되는 이민족의 침략이나, 한국 전쟁 등 전통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경험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통 시대는 오늘날과 같은 방역, 위생 등이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전염병, 기근 등을 야기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이런 경우 백성의 안위를 돌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국가였다. 하지만 수많은 문헌기록을 통해 확인되듯 전쟁과 같은 국가의 위기가 발생하면 공권력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정작 국가는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공동체의 안위를 보장하지 못하고 무기력함만 드러낼 뿐이었다. 오히려 의병과 같은 개인과 가문 등 지역 공동체 단위의 항전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개인과 가문 중심의 지역 공동체의 행동은 국가의 위기를 통해 명징하게 존재감을 발휘했다.

따라서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발현되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양상을 보다 심도 있게 조명해 볼 필요가 생긴다. 이는 팬데믹(Pandemic)시대에 비대면으로 상징되는 개인이 코로나 블루[Corona Blue]로 명명되는 고독에 노출되며 소통 부재로 빠져드는 시대상의 일단을 들여다보려는 시도에 해당된다. 이 경우 우리는 사회적 약자로 지칭되는 사람들

을 버리에 떠올리게 된다. 당대 사회는 이들에 대해 호혜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시선으로 대했으며, 이는 강고한 억압과 구속의 현실로 작동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당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한 실체였다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록이 지배계급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소환된 방식일지라도 이타적 행위를 통해 기억이 되는 주체로 각인되면서 존재를 증명하는 것을 포착하는 데 있다. 본고는 ‘공서(共棲)’라는 개념을 통해 전통시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존재 방식을 확인하고, 그들의 실천 행위와 양상이 공동체에게 끼친 역할을 재조명한다.

2. 공서(共棲)의 개념과 대상에 대한 접근의 시각

본고는 전통시대 공동체성을 재조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서’라는 개념을 끌어오하고자 한다. 먼저, 공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른 종의 두 생물이 서로를 의지하며 그 생활을 경영하는 것”,¹⁾ “두 종의 서로 다른 생물이 일정한 관계로 함께 생활하는 것”²⁾으로 정리된다. 뿐만 아니라 ‘Commensalism’으로 번역되어, ‘장기간에 걸친 생물학적 상호작용으로 한 종의 구성원들이 이득을 보는 반면 이 상호작용에 관계하는 다른 종들의 구성원들은 이득을 얻지도 않지만 해도 당하지 않는 공생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³⁾

위와 같은 공서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핵심은 ‘다른 종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종(異種)이 같은 공간에 사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 한자로 우리는 ‘가(家)’를 떠올릴 수 있다. ‘가’는 宀(집 면)과 豕(돼지 시)로 구성되어, 집안에 돼지가 있는 모습을 그렸는데, 아래층에는 돼지가 위층에는 사람이 살던 옛날의 가옥 구조를 반영한 것을 뜻한다.⁴⁾ 즉, 사람과 가축이 공동주거의 형태로 구성되어 살던 것을 의미하는데, 이종의 공동 주거는 실제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인류의 문명 발전과 함께 이종의 공동 주거에서 분리 주거의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이종이 공동 공간에서 같이 생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고는 이종의 공존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르디외가 ‘상징권력’⁵⁾으로 설명한 바 있듯이 전통시대는 이성(異性), 신분의 차이에 따라 작동하는 계급성이 사회체제의 근간을 이루던 막강한 권력이었기 때문에, 계급성과 정치성의 측면이 이종의 관계에 존재한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즉, 이종 사이에 작동되는 계급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동일한 시공간에 존재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한 것을 공서란 개념으로 포착해 시선의 전변을 요청하는 게 본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은 고전문학에서 분석 방법으로 원용되고 있는 ‘포스트휴머니즘’⁶⁾이나 ‘생태주의’⁷⁾ 등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본고에서 거론하는 공서는 ‘함께’라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이들과 맥락을 같이하지만 1:1의 독립적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치성의 측면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결을 달리하기도 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이나 생태주의는

- 1) 『中文大辭典』, “謂異種之二生物 互相依助而營其生活者”, 中國文化大學印行, 1498쪽.
- 2) 『漢語大辭典』, “兩種不同的生物 以一定的關係生活在一起”, 漢語大詞典出版社, 87쪽.
- 3) Wilson EO(1975), 「Ch.17-Social Symbiosis」,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Harvard University Press, 354쪽.
- 4) 하영삼(2014),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 3, 6쪽.
- 5) 피에르 부르디외의 저(2006), 『구별짓기』, 최종철 옮김, 새물결 참조.
- 6) 이에 대한 최근 논의는 한의승(2019), 「고전 산문을 통해 본 ‘人間’·‘生態’·‘資本’의 양상과 포스트휴머니즘」, 『용봉인문논총』 56,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317-347쪽.
- 7) 최근 논의는 엄태식(2021), 「〈숙향전〉의 생태주의적 독해」, 『돈암어문학』 40, 돈암어문학회, 7-39쪽 참조.

차이에 대한 강조에 방점을 찍는 것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으며 계급성으로부터 탈피, 탈각하려는 성향이 더 강한 반면 공서는 상대적으로 애써 무시하려 들지 않는 실존의 인정에 있어 부분적으로 방향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시대로 시선을 옮겼을 때 공서의 대상으로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반려가 아닌 소유로 존재하는 동식물을 다른 각도에서 주목할 수 있게 된다.⁸⁾

3. 공서(共棲)의 대상이 문학적으로 재현된 양상

1) 윤리적 가치를 공서의 수단으로 활용

전통시대에 사회적 약자들은 공서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컸다. 때문에 주로 부여된 역할은 지배 질서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주로 여성이 그 역을 담당했다. 하지만 희생과 헌신이란 윤리적 가치가 공서의 대상에게는 복무해야만 하는 당위를 넘어서는 지점이 엿보인다는 것에서 주목되기도 한다.

김현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함은 인류의 도리지만 다른 부류와 관계함은 대개 떳떳한 일이 아니요. 그러나 이미 잘 지냈으니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한때의 벼슬을 바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처녀가 말하길 ‘낭군께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일찍 죽음은 대개 천명이며, 또한 제 소원이요, 낭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며,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번 죽음으로써 다섯 가지 이익을 얻게 되는데 어찌 그것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좋은 과보를 얻도록 도와주시면 낭군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겠습니다.’라고 하고 마침내 서로 울면서 작별했다.⁹⁾

위의 예문은 일연(一然, 1206~1289)의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수록된 <김현감호(金現感虎)>의 일부분으로, 주목되는 건 호녀가 죽음을 선택하는 계기이다. 그녀는 김현과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 제 한 몸을 던져 그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다. 남성으로 지칭되는 김현과 오라버니들의 존재는 자기희생을 실천하지 않는다. 남성인 그들을 살리기 위해 여성인 호녀가 희생으로 자신을 내던질 뿐이다. 사회적 약자에 해당되는 여성은 돌봄을 받을 위치에서 도움받지 못하고 남성들을 위해 희생한다. 이때 희생과 헌신이라는 담론 앞에서 남성은 비켜나 있다. 희생과 헌신은 오로지 여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성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 육체적으로 산화될지라도 오히려 윤리적 가치를 실천한 주체로 전면화되면서 존재의 의미가 재조명받게 되는 점이 역설적으로 부각된다.

8) 본고에서 공생(共生)이나 공존(共存) 등과 같은 유사한 개념어들이 존재함에도 공서를 주목하는 것은 동종(同種)을 포함하여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의 관계를 포괄적 시각에서 논의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다. 특히 전통시대에 남성과 여성, 사대부와 평민과 같은 동종의 인간 사이에 위계와 계급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현실이 존재한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전통시대의 구성원으로 동일한 시간과 장소를 공유한 측면을 주목하여 그들의 관계를 공서로 해석하고자 한 것에 해당된다. 이는 동식물 등과 같은 다른 종의 존재 또한 인간중심적 세계 구축에 있어서 특수한 목적 아래 문학적으로 활용된 것일지라도, 인간과 다종(多種)의 존재를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시각에 있어서 그들만의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위계의 언어로 기록되는 행위를 통해 그 계급성과 정치성을 포착한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본고에서 거론한 공서는 기본적으로 동종과 이종을 포괄하면서 생물학적 차이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그들의 관계 속에 내재한 계급성과 정치성의 측면을 인식하면서 접근한 논의에 해당된다.

9) 一然, <金現感虎>, 『三國遺事』, “現曰 ‘人交人, 彝倫之道, 異類而交, 蓋非常也. 既得從容, 固多天幸, 何可忍賣於仇讎之死, 僥倖一世之爵祿乎?’ 女曰 ‘郎君無有此言! 今妾之壽夭, 蓋天命也, 亦吾願也, 郎君之慶也, 予族之福也, 國人之喜也. 一死而五利備, 其可違乎? 但爲妾創寺, 講眞詮, 資勝報, 則郎君之惠莫大焉.’ 遂相泣而別.”

이를 통해 본다면 인내와 배려에 근간한 인정의 발로라는 여성성은 여성을 특정한 전형으로 구속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이 공서의 대상으로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특히 그것은 자기희생을 일정부분 감수하면서 타자를 돕는 이타심으로 형상화됨으로써 공서의 대상으로 여성이 인정받는 지점을 부각시키는 데 중요하다. 이점은 약자인 여성이 배려와 해안을 활용하여 남성에 비해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남성의 자기반성을 이끈다는 점에서 여성이 공서의 대상으로 존재감을 확보하는데 윤리적 가치의 준수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남성과 가문을 위해 여성의 희생을 기록한 열녀전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통시대 이데올로기의 야만적 폭력을 포장한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가 가진 윤리성의 실천을 통해 존재와 의미를 증명한 기록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여성은 사회적 약자에게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윤리성을 오히려 남성에 비해 도덕적 우위를 획득하는 수단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천을 통해 공서의 대상으로 재설정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2) 남성 주도적 행위의 전유를 통한 공서의 대상 각인

한편 사회적 약자의 존재 방식은 윤리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를 감행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양상이 감지된다. 이때, 그녀들에게 주목되는 건 다름 아닌 행위 그 자체이다. 희생이나 헌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출하는 그녀들의 행동은 사회적 약자가 존재를 증명하는 적극적인 방식을 통해 공서의 대상으로 조명되는 강렬한 전변을 견인한다. ‘여협(女俠)’의 형상이 바로 그것으로, 작품 속에 재현되는 양상은 간헐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다는 측면에서 흥미롭다. 예를 들면 열녀전 가운데 복수를 주제로 다룬 작품이나 안석경(安錫敬, 1717~1774)의 <검녀(劍女)>와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적극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해 낸다.

구체적인 예로 18세기 영남 남인인 김약련(金若鍊, 1730~1802)을 주목할 수 있다. 그의 문집인 『두암집(斗庵集)』에는 다수의 열녀전과 동물전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두암제영』에 수록된 작품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면서 전형적인 열녀가 아닌 여협 등과 같은 주체성을 띤 여성의 형상을 포착한 게 눈에 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여협으로 표현된 여성의 형상이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협객의 이미지를 전복시켜 공유하였다는 점이다. 즉, 조선후기에 다량 산출된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맞물려 여성이 남성에 필적하는 공서의 대상으로 재탄생하되, 그 방식이 남성 전유의 상징을 공유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두암제영』에 수록된 <여호결전>의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자.

하루는 탄식하여 말하길 ‘나는 여자가 되어 내 아버지를 현양할 수 없으나 내 아버지를 위해 서울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며, 서울로 들어가 한 부귀한 집에 이르니 문 밖에 늙은 어미가 한 명이 있는 것을 보고 날을 계산해 행동하여 연을 맺을 수 있

음을 알았다. 술과 고기를 올려서 그녀의 마음을 얻은 뒤 상공 부인을 알현할 기회를 얻고는 인하여 그간 겪었던 바 명산대천을 두루 다니며 기이한 견문을 말씀드렸다. 부인이 크게 기뻐하며 서로 전하여 여호걸이라 하였고 여러 공경부인을 두루 뵈었다. 여인은 이에 여러 상공부인에게 나아가 말하길 ‘사람의 자식이 되어 그 어버이를 드러내고자 함에는 남녀와 귀천이 없는 게 모두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여러 부인에게 사랑받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부인께서는 그 뜻을 가련히 여겨주소시오.’¹⁰⁾

10) 金若鍊, 〈女豪傑傳〉, 『斗庵題詠』, “一日, 歎曰, ‘吾爲女子, 無以顯揚吾親, 然吾於爲吾父入京.’ 入京至一貴家, 見門外有一老嫗, 知其可因以售計日. 饋酒肉以結其心, 得謁其相公夫人, 因言其所歷名山大川, 奇聞異見. 夫人大悅, 因相傳爲女豪傑, 徧謁諸公卿夫人, 女乃進說, 諸相公夫人曰, ‘爲人之子, 欲顯其親, 無貴賤男女, 皆同也. 妾幸得爲諸夫人所愛, 願夫人憐其志也.’”

위의 예문에서 확인되듯이 여호걸이라 불리는 여성은 여성성에 갇힌 존재로 형상화되는 것에서 벗어나 있다. 부모를 현양하고자 함에 있어서 아들과 딸의 구분은 필요가 없고, 자식된 입장이라면 동등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게 요구하는 특정한 역할을 거부하고 남성과 다를 바 없는 독립된 인간으로 자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데서 공서의 대상으로 인정할 것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듯 여협의 형상으로 표징되는 여성에 대한 시선은 적극적이고 주체적 행동으로 포착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점에서 일종의 불안감 또한 감지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공서의 대상으로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여성이 사용한 방식이다. 앞서 ‘여호걸’로 운위된 것에서 그 일단을 짐작할 수 있듯이, 공서의 대상으로 각인되기 위해 남성 전유의 모방 행위라는 방식이 활용된다는 점이다. 이는 위계와 권력의 관계에서 동등한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힘겨운 투쟁의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점은 공서의 대상이었던 존재들이 인정받기 위한 과정에 도사리고 있는 막강한 위계와 권력을 넘어서기 위해서 나름의 생존 방식을 고민한 흔적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설령 굴욕의 감내를 요구하더라도 피하지 않고 공서의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는 행동으로 표출된 점이 중요하다.

4. 공서(共棲)를 통한 공동체 구성원의 관계 재조명

앞서 공서의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을 문학적으로 구현한 작품들을 살펴보면 열녀전, 동물전, 전란실기, 필기잡록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열녀전에 구현된 여성의 서사는 여성의 죽음을 포핍과 장려의 형상으로 미화된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남성을 비롯한 사회체제와 지배계급의 기획을 통해 죽음을 강요받는 고통의 현실이 숨어있기도 하다. 특히 여성에 대한 기록은 자신을 위한 희생이 아닌 남성과 가문을 향할 때 수행되고 기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기록의 시선은 지배계급인 남성의 시각에서 재단된 것이나 약자인 여성의 희생을 기록한 것이 오히려 남성과 가문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기까지 하다. 이점은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공서의 조건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은 〈호구일록〉과 같은 전쟁포로실기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즉, 포로

실기의 기록은 살아남은 지배계급 남성의 생환인데, 생존자가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실제 여성과 하층민의 조건 없는 조력과 헌신이 밑받침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동물전의 서사에서는 본질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위계적 관계를 재현하는데 중점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면에는 동물의 희생이나 조력을 통해 주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약자의 행동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는 약자에 의한 강자의 구원과 안정이라는 동일한 구도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전문학에서 위계와 계급의 문제는 신분제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엄연한 실체로 이해된다. 이때 위계와 계급의 문제는 차별의 시선을 내포한 것이기에 그를 둘러싼 상이한 조건의 현실이 동일한 시공간에서 펼쳐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적 차별 속에서 공존해 나가는 방식이 공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서는 이른바 위계와 이종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공생의 현실적, 실체적 재현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는 공존과 소통 등으로 인간과 타자를 인식할 때 야기되는 개념과 현실의 틈을 보완하며, 현존 관계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사실적 인식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공서는 위계적 현실의 관계 속에서 상상과 희망에 기반한 인식에서 벗어나 있는 관계의 정치성을 포착하되 사회적 약자의 희생과 헌신 등을 당위로 규정하는 게 아닌 계급성을 초월하는 인정의 발현으로 재인식될 수 있다. 이는 계급성을 포함한 사회체제와 지배계급의 당위를 전복시키는 역동의 계기로 포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존재는 공서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기될 수 있다. 이름 없는 자로 묻힌 역사가 아닌 호명되는 주체로 서게 된다.

이 경우 공서는 공동체를 이해하는 단서로 새롭게 정초될 수 있다. 즉, 전통시대의 가문 중심 혈연 공동체의 폐쇄성과 위계성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의미론으로 제안되는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동식물 등 서로 이질적인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비동일성의 의미론으로 부각되는 것이다.¹¹⁾

11) 류도향(2018), 「초개인화 시대, 신뢰와 공서의 의미체계로서 가족」, 『가족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인문학적 지평』,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 연구단 국내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02-103쪽.

참고문헌

<자료>

- 金若鍊, 『斗庵題詠』, 翠菴文庫 소장본.
- 一然, 『三國遺事』.
-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印行.
- 『漢語大辭典』, 漢語大詞典出版社.

<논저>

- 하영삼(2014),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 3.
- 피에르 부르디외 저(2006), 『구별짓기』, 최종철 옮김, 새물결.
- 류도향(2018), 「초개인화 시대, 신뢰와 공서의 의미체계로서 가족」, 『가족패러다임의 대전환과

- 인문학적 지평』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연구단 국내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02-103.
- 엄태식(2021), 「〈숙향전〉의 생태주의적 독해」, 『돈암어문학』 40, 돈암어문학회, 7-39.
 - 한의승(2019), 「고전 산문을 통해 본 ‘人間·生態·資本’의 양상과 포스트 휴머니즘」, 『용봉인문논총』 56,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317-347.
 - Wilson EO(1975), 「Ch.17-Social Symbiosis」, *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Harvard University Press, 354.

19세기 일상생활의례의 실천을 통한 애경(愛敬)의 구현:¹⁾ 류중교의 사친삼의를 중심으로

박미선(전남대 인문학연구원)

1. 들어가며

유교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예를 실천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었다. 본고에서는 19세기 '위정척사파'의 대표인물인 류중교가 '사친삼의(事親三儀)'라고 하는 의절을 마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의례의 실천을 어떠한 방식으로 거행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친삼의는 부모를 섬기는 세 가지 의절로 '아침저녁으로 문안하는 의절[晨昏定省儀, 이하 신혼정성의]', '삭망에 배알하는 의절[朔望參謁儀, 이하 삭망참알의]', '시절마다 장수를 축원하는 의절[時節上壽儀, 이하 시절상수의]' 등이다.

2. 아침저녁으로 문안하는 의절[晨昏定省儀, 신혼정성의]

'신혼정성의'는 첫닭이 울면 세수하고 양치질한 후 부모님께 문안인사 드리는 의절이다. 류중교가 경애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아침, 저녁으로 문안인사를 올리는 의절을 정리한 것이었다. 이는 『소학』에 기술된 것으로 자세한 의절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일상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류중교는 별도의 의절을 작성하였다. 『가례』의 첫머리에 있는 사마광의 거가잡의와 현인들이 남긴 의식을 참고하여 저술한 것이었다.²⁾ 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1) 이 글은 박미선(2022), 「19세기 후반 류중교의 가족윤리와 가족 실천에 대한 인식-「류씨가전」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제 104집에 실린 글 중 3장 2절의 내용에 해당한다.

2) 『省齋集』, 「부록·연보」, “洛隱公與李夫人, 常受養於先生. 先生事之, 愛敬備至, 如晨昏定省之節, 固已行之, 至是參取溫公諸賢遺儀, 著其儀節.”; 『省齋集』 권46, 「柯下散筆·事親三儀」, 晨昏定省儀.

<표 1> 아침, 저녁으로 문안인사 올리는 의절[晨昏定省儀]

구분	아들[諸子], 며느리[諸婦]의 의절
날이 밝기 전	세수, 머리 빗기, 옷입고 띠 두르기→부모(시부모)의 침소에 나아가기→모시는 자에게 밤새 문안을 묻기→물러나와 음식을 마련하기→부모(시부모)가 일어나 앉기를 기다리기→들어가 차례로 절(拜)하기→마주보고 안부를 살피기→이불과 요를 개기→음식을 올리기→세숫물을 대령하기
사당에 배알할 때	아버지를 따라가서 계단 사이에 이르기→전배(展拜)하기→물러나와 각각의 일을 하기
식사시간이 될 때	다시 나아가 음식을 차리기→뚜껑을 찬지 따뜻한지를 살피기→수저를 들기를 기다리기→물러나와 각자 밥을 먹기→상을 물리면 다시 나아가 얼마나 드셨는지 살피기
저녁 식사시간이 될 때	이전의 식사 때와 같이 함
밤에 부모(시부모)가 주무시려고 할 때	요를 깔고 이불을 펴기→따뜻한지 찬지를 살피기→절(拜)하고 물러나오기

‘신혼정성의’는 매일의 의절이다. 매일 날이 밝기 전 부모님이 일어나시기 전부터 밤늦게 부모님이 잠들 때까지 아들, 며느리의 의절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손자와 손부, 증손자와 증손부가 있다면 이들도 함께하였다. 부모에 대한 아침 문안이 끝나면 아버지는 사당을 배알하는데 아들은 이를 따라가 전배(展拜)를 하고 이것이 끝나면 각자의 일을 하였다. 그리고 다시 식사 시간이 되면 음식을 차리고 정리하며, 저녁 시간이 되어 식사를 할 때가 되면 다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거행하는 것이었다. 저녁에는 부모님께 요와 이불을 펴 드리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기다렸다가 물러나왔다.

이 의절에서 류중교가 주목한 것은 예를 갖추어 부모를 뵙는 격식에 대한 것이었다. 고대에는 단지 부모님께서 추운지 더운지 살피며 안부를 묻고 부모가 바라시는 것이 있으면 공경히 올리며 부모의 가까이에 나아가 봉양하였다. 이후 송대 사대부들은 살아계신 부모에게 ‘절하고 읍하는 예절(拜揖)’과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사당에 ‘예를 갖추어 뵙는 의식(禮見)’과 같은 격식을 만들어냈다. 류중교는 송대와 같이 생존해 계신 부모께 ‘배읍’하고 부모를 위해 사당에 ‘예현하는 격식을 모두 따를 만하다고 여겼다. 그렇지만 송대 읍(揖)하는 것과 달리 조선에서는 배례(拜禮)를 하였으므로 조선의 예법에 따라 배례하는 의절로 정리하였다. 사당에 예현할 때에는 아버지가 알묘한 뒤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앉기를 기다려 가중(家衆)이 일제히 뵙고 한 번 절하도록 하였다.³⁾ 이처럼 류중교는 하루 동안 해야 할 의절의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저술하여 매일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 애경을 조화롭게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을 「류씨가전」에 제시하였다.

3) 『성재집』 권45, 「柯下散筆·柳氏家典」, 事親.

3. 매일 초하루와 보름에 참알하는 의절[朔望參謁儀]

다음으로 매일 초하루와 보름에 참알하는 의절[朔望參謁儀]도 작성하였다. 류중교는

송과 명의 삭망에 대한 설을 살피고, 백성에게도 이 예가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명 태조 대 이후였고, 이제는 그것을 준용해서 삭망배가 거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류중교는 이 의절을 사마광의 「거가잡의」에 정리된 배례와 송시열 가문의 성독을 합쳐서 작성하였다. 우선 「거가잡의」의 삭망배의(朔望拜儀)에서 “여러 자손 남녀는 가장에게 절하고 나서, 또 항렬마다 각각 절하는 예절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각 세대마다 한 줄씩 재배한 후 차례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또 성독은 송시열이 삭망에 부인과 앉아서 자손 남녀에게 절을 받고 장손부(長孫婦)에게 「소학」을 읽도록 명하고 여러 며느리로 하여금 이를 둘러 앉아 듣도록 하였는데, 이를 참고하였다.⁴⁾

4) 위와 같음.

삭망에 배알하는 의절(朔望參謁儀)에 있어서 배례와 성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의 하여 아래의 절차를 살펴보자. 이 의절의 배례와 성독은 다음에서 살펴볼 세 번째 의절인 계절마다 장수를 축원하는 의절(時節上壽儀)에도 활용되므로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이 의절은 먼저 자리를 설치하고 참여자들이 배례를 한 후 성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자리의 배치는 <그림 1>과 같은데 1870년 류중교 집안에서 그의 부친 류조가 73세 때 거행했던 참알 의절 때의 자리를 참고하여 그린 것이었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표 2> 삭망에 배알하는 의절[朔望參謁儀]

구분	대상	매월 삭망 의절	
자리 설치	諸卑幼	正寢을 청소하고 깔개를 깔아 자리를 마련 -父母位(堂北壁下) : 父(東), 母(西), 並南向 -諸子位 : 堂中近東, 北面西上 -諸婦位 : 堂中近西, 北面東上 -諸孫子婦 : 重行在後 -婢僕立 : 階下 -書案 1 : 堂中(「戒辭」, 『小學』, 『家禮』)	<p><그림 1> 참알위차도</p>
입장 및 배례 拜禮	父母	訖, 먼저 位坐에 나아감	
	子婦以下	자리에 나아감, 함께 再拜	
		訖, 모두 堂門 밖으로 나옴	
	諸子	門東西上에 자리함, 南面	
	諸婦	門西東上에 자리함, 南面	
	諸孫子婦以下	모두 北面, 1열로 하여 再拜	
	諸子諸婦	먼저, 문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나아감	
諸孫子婦	南面하고 曾孫以下の 재배를 받음(앞과 같음)		
諸孫子婦	訖, 모두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감		

구분	대상	매월 삭망 의절
성독 聲讀	父	諸卑幼에게 앉도록 명하면 앉음
		諸男一人에게 명하여 『戒辭』를 읽도록 함
	讀戒者	일어나서 書案의 왼쪽에 나아감, 西向坐, 讀 『戒辭』一遍
	諸子孫	俯身聽之
	諸子孫	訖, 일어나서 再拜하고 다시 자리에 앉음
讀戒者	『小學』, 『家禮』를 각각 3단락~5단락 이상씩 읽음, 의미를 설명	
-	-	至晚, 끝

자리의 배치는 가족 구성원의 명분을 확연하게 드러냈다. 먼저 부모의 자리는 정침의 당의 북쪽 벽 아래에 마련하여 행례의 가장 중심 자리에 위치했다. 부친은 동쪽, 모친은 서쪽에 자리하고 모두 남쪽을 향하였다. 아들과 며느리, 손자와 손부의 자리는 당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들은 부친이 위치해 있는 동쪽에 며느리는 모친이 위치해 있는 서쪽에 자리를 두고 북쪽을 향하도록 하였다. 동쪽에 자리한 아들의 자리 중 중앙에 가까운 서쪽 자리가 더 높은 자리였고, 서쪽에 자리한 며느리의 자리 중 중앙에 가까운 동쪽이 더 높은 자리였다. 손자와 손부는 그 뒤에 자리했다. 그리고 여자 종은 서쪽 계단 아래에 남자 종은 동쪽 계단 아래에 두었다. 남녀, 존비, 장유의 위계에 따라 행례할 자리를 중앙, 북남, 동서를 축으로 정한 것이었다.

행례는 배례, 성독 순서로 이어졌다. 배례를 받을 부모가 먼저 자리하여 앉았다. 배례를 할 아들과 며느리 이하가 자리에 나아가 함께 재배한 후 모두 당의 문 밖으로 물러나왔다.⁵⁾ 문 밖의 자리도 남녀의 구별에 따라 동서로 나누어 아들과 며느리 이하가 자리하였다. 장유에 따라 아들과 며느리 중 윗사람은 당의 중앙 쪽에 더 가까이 위치하였다. 부모가 없는 문 밖에서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북쪽에 위치하고 남쪽을 향해 섰으며 여러 손자와 손부 이하가 모두 북쪽을 향해 마주보고 한 줄로 섰다. 문 밖에서 세대별로 배례를 하였다. 재배를 받은 아들과 며느리들은 먼저 당의 문안으로 들어가서 자리하였다. 이하 손자와 손부가 남쪽을 향해서 같은 방법으로 중손 이하의 재배를 받았다. 이렇게 각 세대별 배례가 모두 끝나면 모두 당으로 들어가서 자리하였다.

배례 후 부친의 명을 받고 성독(聲讀)을 하였다. 당 가운데 책상 위에 성독할 『계사(戒辭)』, 『소학』, 『가례』를 놓아 두었다. 『계사』는 부친 류조가 당부한 말씀을 류중교가 정리한 것이었다. 당으로 들어온 비유(卑幼)를 부친은 자리에 앉도록 명령한 후 아들 중 1인이 『계사』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읽도록 하면,⁶⁾ 여러 자손들은 모두 부복(俯伏)하여 공손히 이를 들었다. 한 편을 다 읽고 나면 모두 몸을 일으켜 재배하고 다시 자리하였다. 그리고 다시 『소학』과 『가례』에서 각각 3~5단락 이상을 뽑아 그 의미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

5) 만약 정침의 당에 문이 없다면 병풍을 세워서 그 정계로 삼았다.

6) 그 지목된 아들은 일어나서 책상의 왼쪽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앉고 소리 내어서 계사 한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읽었다.

다. 만약 부친이 『시경』을 노래하도록 명령을 내리면 『시경』을 노래하도록 하고 해질녘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⁷⁾

즉, 매달 두 차례 사당에 참알하는 의례가 끝나면 집안의 성인남녀 모두가 모여 부모님께 배례하고 각 향렬별로 서로 배례를 하여 애경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모두 모여 집안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선조의 유훈인 『계사』와 유학의 기본서인 『소학』, 가정 예법서인 『가례』를 읽고 그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가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와 질서를 내면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시절마다 장수를 축원하는 의절[時節上壽儀, 이하 시절상수]

시절상수의는 매년 정월 초하루와 동지, 그리고 사철 첫 달의 초하루라고 하는 정기적인 시기와 부모의 생신날 아침과 부정기적인 집안 잔치 때에 집안의 가장에게 축원과 헌수를 올리는 의절이었다. 상수례의 연원은 고대에 존경하는 분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며 축수하는 전례에서 시작하였다. 『가례』에서는 사마광이 절기의 차서와 비정기적인 집안의 잔치에서 가장에게 축수를 올렸던 의식이 있었다. 류중교는 절기의 차서를 살펴볼 만한 것이 없었고 고례에 신하나 자손들이 성대한 음식을 갖추어 잔치를 열었던 삭식(朔食)의 예만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주자증손여씨향약』에서는 예의 바른 풍속으로 사귄 때에 젊은이와 어린이는 존자(尊者)나 장자(長者)에게 설, 동지, 사계절의 첫 달 초하루에 모두 예를 갖추어 보는 일이 있었다. 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합치고 뜻을 취하여 설, 동지, 사계절의 첫 달 초하루에 술과 음식을 갖추고 가장에게 축원과 헌수를 올리는 의절을 서술하였다. 다만 집안의 경사는 날짜를 미리 정하지는 않고 일에 따라 합당하게 하도록 하였다.⁸⁾

상수례는 앞서 살펴본 삭망에 참알하는 의식에서 자리를 마련하고 입장 후 배례를 하는 것과 동일하였다.⁹⁾ 추가로 술과 음식을 갖춘 탁자와 관련된 물품이 진설되었고,¹⁰⁾ 그 외에 부친에 해당하는 향렬의 사람과 어머니에 해당하는 자의 자리를 각각 부친의 왼쪽과 모친의 오른쪽 자리로 정리하였다. 또 내종, 외종 등 중표친척(中表親戚)으로 향렬이 낮거나 어린 자들은 자손의 세차로 정리하여 온 친척들이 모여 가장에게 축수를 올렸다.

<표 2> 삭망에 배알하는 의절[朔望參謁儀]

구분	대상	時節上壽儀(매년)
자리 설치 / 진설 (陳設)	諸卑幼	父母位, 諸子位, 諸婦位, 諸孫子婦, 婢僕, 書案 자리 및 위치는 <표 2>의 朔望參謁儀와 같음 -추가 설치 자리: 아버지에게 해당(父位之左, 西上), 어머니에 해당(母位之右, 東上), 中表親戚卑幼(子孫世次에 의거함)
		탁자: 父母位前, 諸尊位前 설치(각각 數品 陳饌)
		탁자: 東階上 설치(술병 1, 주전자 1, 잔과 잔대4)
		대야, 수건: 其(東階上) 北

7)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도 류중교는 자세히 기록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어머니만 살아계시면 의식은 이와 같이 하되, 주인이 家衆에게 命戒하려고 할 때에 특별히 그 주인이 어머니 앞에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앉도록 하였다. 또 만약 동거하는 자가운데 父母보다 향렬이 높은 旁親이나 같은 향렬의 부모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도 기술하였다. 즉, 높은 향렬의 방친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정침의 당 북쪽 벽 아래에 자리를 마련하여 부모가 먼저 자손을 이끌고 북쪽을 바라보고 방친에게 재배하였다. 그리고 부모는 동벽, 서벽 아래로 나누어 나아가서 상대하여 揖하고서 앉아서 자손의 배례를 받는다고 하였다. 만약 향렬이 같은데 나이가 어린 부부는 부모가 앉고 나서 이 부부가 먼저 특별히 부모에게 나아가 배례하고서 諸父는 아버지의 왼쪽에, 諸母는 어머니의 오른쪽에 남쪽을 바라보고 앉도록 하였다.

8) 『성재집』 권45, 『柯下散筆·柳氏家典』 事親.

9) 부모와 제존장이 입장하고 비유들이 채복을 입고 입장하여 배례를 할 때에는 참알례 때의 행례를 참고하여 거행하면 됐다. 그렇지만 생신이나 부정기 잔치에서는 전배가 후배에게 배례를 받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10) 탁자는 부모의 자리 앞과 諸尊位 앞에 설치하고 각각 몇 가지 찬품을 올렸다. 諸卑幼의 자리에는 탁자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계 정침의 당으로 올라가는 동계 위에 탁자를 설치하였는데, 술병, 주전자 각 1개씩과 잔과 잔대 4세트를 올려두었다. 잔과 잔대는 아버지에게 1세트, 어머니에게 1세트, 아버지나 시아버지 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용할 세트 1개, 어머니/시어머니 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일괄적으로 사용할 1세트 이렇게 4세트를 갖추었다. 동계 위에 있는 술병, 주전자, 잔과 잔대를 올려둔 탁자의 북쪽에 손 씻는 대야와 수건을 갖추었다.

구분	대상	時節上壽儀(매년)
입장 및 배례	父母, 諸尊長	먼저 자리에 나가 앉음
	諸卑幼	彩服을 입고 자리에 나아가서 參謁拜 <표 2>와 동일함(단 사시에만 하고 생신, 부정기적인 잔치에는 하지 않음)
父位 奉盞, 祝	長男이하	-장남 : 손을 씻어 닦고 父位 앞에 나아가서 北向, 立 -男少者一人 : 주전자에 술을 채워 받들고 장남의 오른쪽에 나아감 -一人 : 잔과 잔대 하나씩을 받들고 장남의 왼쪽에 나아감
	獻者이하	-헌자는 장남, 跪 -주전자를 받든 사람 1인, 잔을 받든 사람 1인도 跪
	獻者이하	-주전자를 받아 술을 따른 후 주전자를 돌려주고 잔을 받들 -축원 “伏願大人, 備膺五福, 保族宜家”, “伏願大人, 履茲某辰, 備膺五福, 保族宜家” -잔을 들고 일어나, 아버지 자리 탁상 위에 바침 -부친이 잔을 들어 마시기를 기다림 -모두 물러나와 자리로 돌아감
	모두	諸卑幼와 함께 재배
母位 奉盞	長男이하	위의 父位 奉盞과 동일 축원 “伏願大人, 備膺五福, 保族宜家”, “伏願大人, 履茲某辰, 備膺五福, 保族宜家” 절차는 없음
諸父位 諸母位 奉盞	長男이하	장남 : 諸父位 앞, 北面, 跪 주전자를 받든 사람, 잔을 받든 사람 : 다른 잔 한 개를 들고서 따름 諸位에 두루 올리고 일어남
	長男이하	諸父位와 동일
長男 長婦 酢儀	父	諸卑幼에게 酢(답하는 술)하도록 명령
	執事	酒卓을 당 가운데로 옮겨서 설치함
	男少者1	가지런히 나아가 주탁 남쪽에 섬(남은 동, 여는 서)
	女少者1	
	男少者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잔과 잔대를 들고 탁자 앞에 나아가 北面, 跪, 술을 따라 長男에게 올림, 장남이 서서 마시고 잔을 도로 줌
	女少者	어머니 자리에 있는 잔과 잔대를 들고 탁자 앞에 나아가 北面, 跪, 술을 따라 長婦에게 올리면 만며느리가 서서 마시고 잔을 도로 줌
	男少者	교대로 나아가 술을 따라 각각 여러 자리에 두루 술을 올림.
	女少者	잔과 잔대를 부모위 앞에 도로 갖다 둠
諸卑幼	再拜	
食 饋果	父	비유에게 앉으라고 명하고 밥을 먹음, 과일을 나누라고 명함
	男少者	나아가 아버지 자리의 남은 과일을 받들어 여러 남자 비유에게 나누어 줌
	女少者	나아가 어머니 자리의 남은 과일을 받들어 여러 여자 비유에게 나누어 줌
酒巡	男少者	父位, 諸男尊長, 卑幼의 순서로 돌림(酢儀와 같음)
	女少者	母位, 諸女尊長, 卑幼의 순서로 돌림(酢儀와 같음)
	男少者2	堂南 끝에 나아가, 北面하여 앉아서 詩를 노래, 거문고로 장단을 맞춤
罷	尊長	존장이 명하면 과함

행례의 순서는 참여자의 입장, 배례→장남의 헌수와 축원 행례→남소자(男少者)와 여소자(女少者)의 작의(酢儀)→반과(頒果), 주순(酒巡), 노래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장남이 부친, 모친, 제부, 제모에게 술잔을 올렸다. 먼저 부친에게 술잔을 바치고 “엎드려 바라건대, 대인께서 오복(五福)을 고루 받아 종족을 보존하고 집안을 화목하게 하십시오.”라고 축원을 한 후 재배를 하고, 모친에게도 술잔을 바치고 재배를 하였다. 장남의 행례가 끝나면 남소자와 여소자가 장남과 장부에게 답술을 전하고 재배 후 자리하였다. 그 후 부친의 명령으로 모두 식사하고 남소자와 여소자가 남은 과일을 비유에게 나누어 준 후 남소자가 부친, 여러 존장 어른, 비유 순서로 술을 돌리고, 여소자는 모친, 여러 존장 어른, 비유 순서로 1, 2차례 술잔을 돌렸다. 술잔을 다 돌리고 나서는 남소자 2인이 시를 노래하고 거문고로 장단을 맞추었다. 헌수와 축원을 하는 일정한 예와 음악이 어우러졌다.

부친과 모친에게 헌수는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술잔을 올리며, 술잔을 올린 후에는 재배를 공경히 하였다.¹¹⁾ 술잔을 1, 2회 돌릴 때에는 남소자, 여소자가 부, 존장자, 비유의 순서로 차례를 지켰다. 또 과일을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두루 나누어 주며, 아래로 천한 비복에게까지 나누어 주었다. 노래는 번갈아 가며 서로 화답하거나 함께 소리 내어 노래하였다. 노래하는 시는 형제간의 우애를 즐기는 노래, 제사가 끝나고 부형에게 잔치를 베푸는 시, 부형이 이에 답하는 시, 부녀자에게 통용되는 노래, 직무를 잊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시, 부부가 서로 경계하는 뜻을 취한 시편을 노래하였다. 이것과 함께 규문에서의 악장에 적합한 여러 편을 따로 베껴서 한 권을 만들고 한글로 번역하여 해설을 붙여서 부녀들도 대의를 알도록 하였다. 또 초하루에는 과하기 전에 삭망참알의 때처럼 『계사』를 읽도록 하였다.¹²⁾ 부모는 비유에게 과일을 나누어 주고 연소자들은 공경한 태도로 예를 다하여 가족 간의 애정을 의절로 드러낼 수 있었다.

5. 애경을 실현하기 위한 예법의 실천

류중교가 이상의 사친삼의를 그의 일상에서 얼마나 잘 실천하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1870년 사친삼의 의절을 작성할 당시 이러한 의절들을 실천하고 있었고, 또 그 후에도 아버지의 영정을 모시고 와서 삭망참알의를 거행하였다. 따라서 류중교 집안에서 이러한 의절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¹³⁾

류중교는 이처럼 자신의 집안에서 거행하였던 일상의 행사들을 별도의 의절로 저술하였다. 그는 ‘예법을 숭상’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되고 그 곳의 문명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때의 예법을 변함없는 절대 불변의 것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류중교는 예와 악이 성인에 의해서 발생하였지만 그 탄생보다 예악을 미루어서 넓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방법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었다. 법에

- 11) 제부위와 제모위 앞에서의 행례 후 재배는 없었다.
- 12) 『성재집』 권46, 「柯下散筆·事親三儀」
- 13) 류중교는 이 예법을 부친이 돌아가시고 1873년(고종 10) 9월 까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서 그는 덕이 없어서 가장의 예법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 절차 가운데 부친의 경계한 말씀을 읊는 절차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의 말씀을 가슴이 먹먹하여 차마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로 행하지 않아서 예법을 없앤다면 이는 더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고, 직접 집안에 아버지의 영정을 모시고 와서 초하룻날과 보름날로 전알(展講)하면서 의식을 거행하였다(『성재집』 권39, 「柯下散筆·敬題皇考戒家衆辭後」).

저촉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의례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곧 예법을 숭상하는 것이었다.¹⁴⁾ 이러한 측면에서 류중교가 부모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 실제 행례를 전후하여 작성되었던 「사친삼의」를 「류씨가전」에 수록하였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애경을 실현하기 위한 예법의 실천을 중시 여겼던 그의 오랜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다.

14) 『성재집』 권39, 「柯下散筆·敬題
皇考戒家衆辭後」

참고문헌

<자료>

- 류중교, 『성재집(省齋集)』

<논문>

- 박미선(2022), 「19세기 후반 류중교의 가족윤리와 가족실천에 대한 인식- 「류씨가전」을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104.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통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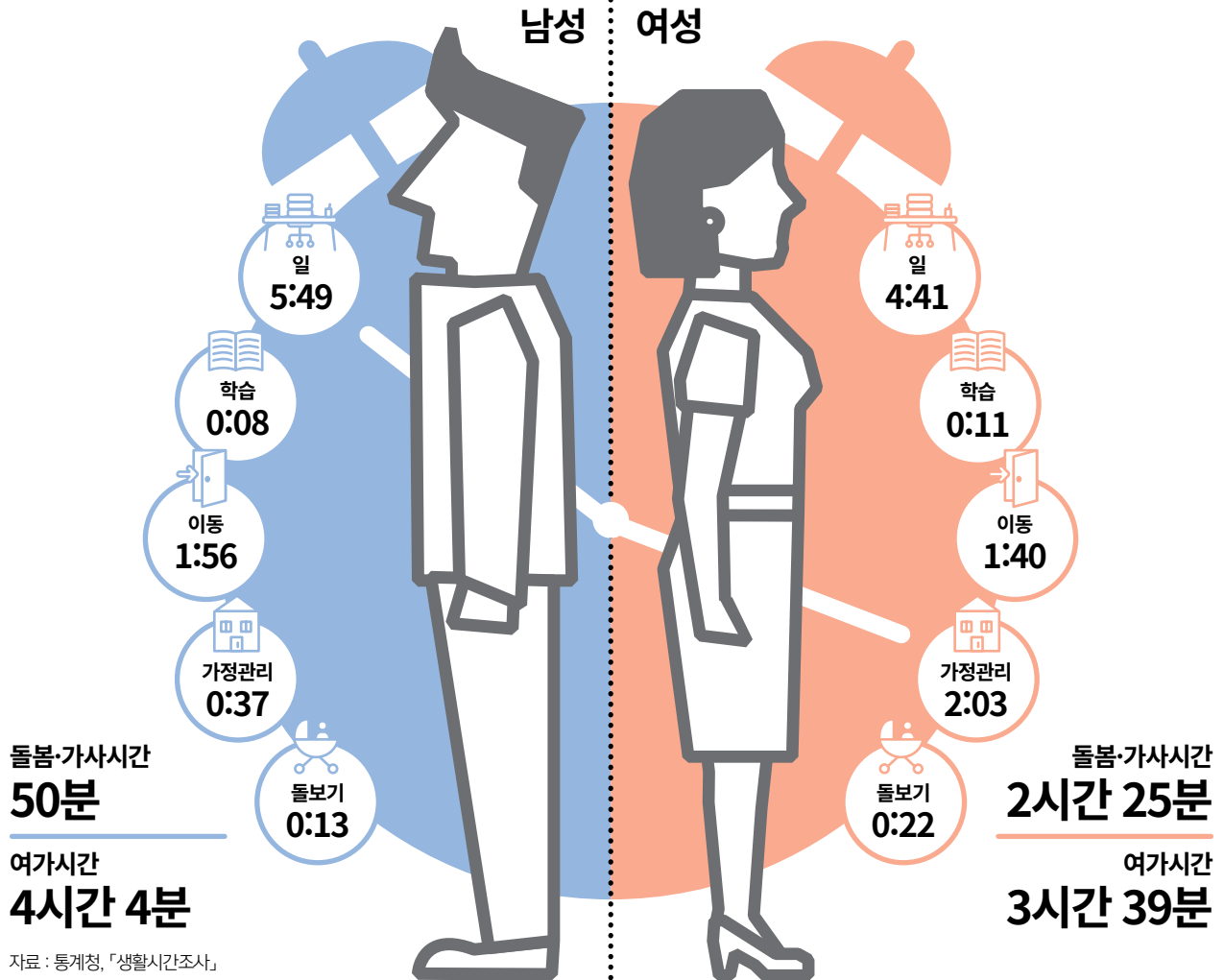
1. 인포그래픽 - 돌봄과 주체
2. 돌봄과 주체(김희송, 추주희)

* 한국의 가족 정책과 관련된 의미있는 통계 자료와 시사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스와 더불어 정부의 가족관련 정책과제와 사회 이슈, 세계가족정책 사례 및 통계들을 재구성 및 요약하여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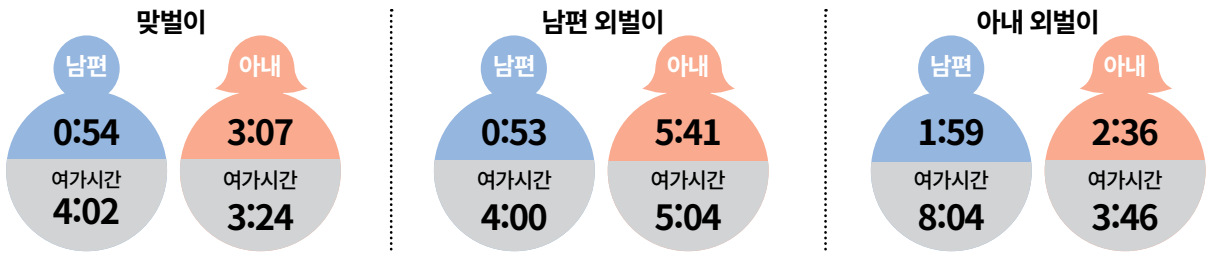
가족커뮤니티그래픽스

돌봄과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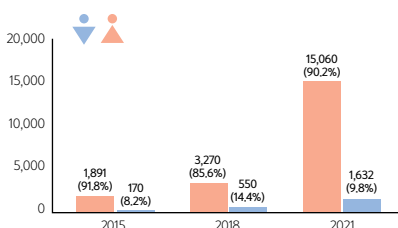
취업한 남녀의 돌봄 노동(2019)



맞벌이 여부별 남녀의 돌봄·가사시간(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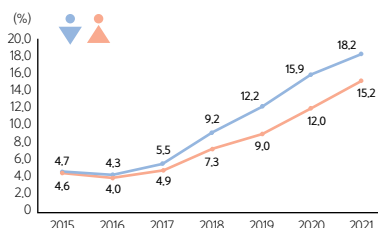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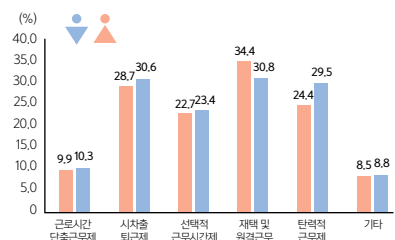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주 : 1) 단축제도 활용 초회 수급자 수임

성별 유연근무 활용비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주 : 1) 각년도 8월을 기준으로 함

성별 유연근무 활용 유형(2021)



돌봄과 주체

김희송(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추주희(전남대 인문학연구원)

이번 가족커뮤니티포커스 7호에서 주목하는 통계 동향은 돌봄의 분배적 측면이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돌봄과 관련된 국정과제는 돌봄 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 능률주의의 맥락에서 노동시장, 제도권 정치영역에서의 유리천장이 공고화 되는 현실¹⁾을 돌아볼 때 현재의 제도와 정책은 전통적인 돌봄의 언어, 즉 매우 성별화된 돌봄, 사적 돌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이에 이번 가족커뮤니티포커스에서는 남녀의 돌봄 격차를 확인하고, 돌봄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와 실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2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발표한 <2022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중심으로 살펴본다.²⁾

1. 가족과 일, 돌봄노동의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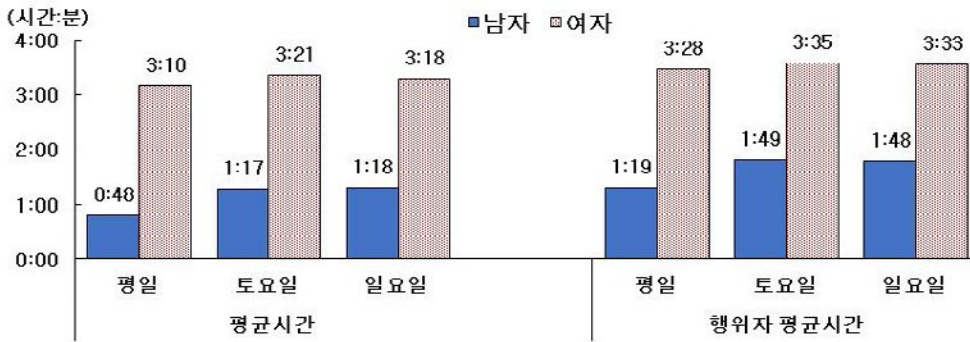
1)가사노동시간 남녀사용 시간

성인 여자의 가사노동 비율은 평일, 주말 모두 92% 내외로 5년 전 대비 1%p 미만의 변화를 보이며, 가사노동시간은 11~16분 감소하였다. 여자의 경우 평일과 주말의 가사노동시간 차이가 10분 미만으로 크지 않는다. 반면 남성은 성인 남자의 60.8%가 평일에 가사노동을 하며, 주말 가사노동시간은 토요일 1시간 17분, 일요일 1시간 18분이며, 가사노동을 한 남자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토요일 1시간 49분, 일요일 1시간 48분이다.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가사노동의 다수의 시간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1) 이은기(2022.9.28.), "윤석열 정부 100대 요직 가운데 여성은?" 시사인 784호. 출처: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92>, 오세진, 이주빈(2022.10.4.), "여가부, 복지부 산하로? 윤정부, 성평등 정책 버렸다 비판 쏟아져", 한겨레신문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61344.html>

2) 여가부는 1997년부터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이 발표로 우리 사회 속 여성의 모습을 다양한 주제로 조명해왔다. 양성평등주간마다 발표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은 각종 통계로 여성의 현실을 조명하고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한다는 목적을 갖는다. 2022년 여가부는 보다 종합적인 시각을 반영한다는 목적에서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제목을 변경하였다. 이번 포커스에서는 이번 에 발표된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의 통계자료를 인용 및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그림 1> 가사노동시간(2019)



<표 1> 성인(19세 이상)의 가사노동시간

단위(시간 : 분, %)

	평일						토요일						일요일					
	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평균시간		행위자비율		행위자평균	
	2014	2019	2014	2019	2014	2019	2014	2019	2014	2019	2014	2019	2014	2019	2014	2019	2014	2019
□ 전체	2:03	2:00	72.2	76.5	2:50	2:37	2:20	2:20	77.9	82	3:00	2:51	2:23	2:19	81.2	83.1	2:56	2:48
가정관리	1:36	1:36	68.7	73.3	2:20	2:11	1:54	1:56	75.4	79.8	2:32	2:26	1:58	1:57	78.2	81.1	2:31	2:24
가족 돌보기 ¹⁾	0:27	0:24	24.6	22.8	1:48	1:47	0:26	0:24	23.5	22	1:50	1:49	0:25	0:22	23.4	21.5	1:47	1:44
□ 남자	0:39	0:48	52.4	60.8	1:14	1:19	1:00	1:17	61.8	70	1:38	1:49	1:13	1:18	67.9	72.5	1:46	1:48
가정관리	0:30	0:38	45.8	55	1:05	1:09	0:45	0:59	56.7	66.3	1:19	1:29	0:54	1:01	62.1	68.8	1:26	1:29
가족 돌보기	0:09	0:10	14.7	15.2	1:01	1:06	0:15	0:18	17.5	18.3	1:27	1:36	0:19	0:17	19.4	18.3	1:36	1:33
□ 여자	3:22	3:10	91	91.6	3:42	3:28	3:35	3:21	93	93.3	3:51	3:35	3:30	3:18	93.9	93.3	3:44	3:33
가정관리	2:39	2:32	90.5	91	2:56	2:47	2:59	2:51	92.8	92.8	3:13	3:04	2:59	2:51	93.6	93	3:11	3:04
가족 돌보기	0:43	0:38	33.9	30.1	2:07	2:08	0:36	0:30	29.2	25.6	2:02	1:57	0:31	0:27	27.3	24.6	1:54	1:51

자료: 통계청(202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주) 1.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2. 「전체평균시간」이란 특정 행동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집계한 평균시간을 의미하며, 「행위자 평균시간」이란 특정행동을 하루 24시간 중 10분 이상 한 사람들만의 평균시간을 의미

이는 <2022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2020년 가사분담 인식에서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여성은 67.0%, 남성은 57.9%로 남녀 과반수 이상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가사분담 실태에서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률이 여성은 20.2%, 남성은 20.7%로, 가사분담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서 차이가 여전히 크다. 이 역시 돌봄의 성별화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 가사분담 인식

(단위: %, %p)

	연도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해야 한다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	남편이 주로 하고 아내도 분담해야 한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여성	2018	2.5	31.7	63.4
	2020	2.7	27.5	67	2	0.8
남성	2018	5.2	37.5	54.6	2.1	0.6
	2020	5.3	34.2	57.9	1.8	0.8
'20년 차이(여-남)		-2.6	-6.7	9.1	0.2	0.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분석

<표 3> 가사분담 실태

(단위 : %, %p)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아내가 주로 하고 남편도 분담한다	공평하게 분담한다	남편이 주로 하고 아내도 분담한다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여성	2018	26.9	50.8	19.5	2.4	0.4
	2020	25.1	51.7	20.2	2.5	0.4
남성	2018	21.9	54.3	20.2	2.9	0.8
	2020	21.1	54.6	20.7	2.7	1.0
'20년 차이(여-남)		4.0	-2.9	-0.5	-0.2	-0.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원자료 분석

주 : 1) 응답대상이 19세 이상 유배우자임

2) 취업여부와 맞벌이에 따른 시간사용

2019년 취업 여성의 평균 일·학습·이동 시간은 6시간 32분, 돌봄·가사시간은 2시간 25분, 여가 시간은 3시간 39분으로, 돌봄·가사 시간은 남성보다 길고 일·학습·이동 시간 및 여가 시간은 남성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 여성이 취업 남성보다 돌봄·가사 시간이 1시간 35분 더 많았다.

<표 4> 취업여부별 시간사용

단위(시간 : 분)

	행동분류별		2019	
			여성	남성
취업	필수시간	수면, 식사, 개인유지 등	11:23	11:14
	의무시간	일	4:41	5:49
		학습	0:11	0:08
		이동	1:40	1:56
		가정관리	2:03	0:37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22	0:13
	여가시간	교제, 문화활동, 봉사 등	3:39	4:04
비취업	필수시간	수면, 식사, 개인유지 등	11:58	12:09
	의무시간	일	0:10	0:14
		학습	0:33	1:24
		이동	1:16	1:16
		가정관리	3:18	1:09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52	0:09
	여가시간	교제, 문화활동, 봉사 등	5:54	7:38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19년 맞벌이 가구 여성의 돌봄·가사 시간은 3시간 7분이고, 남성은 54분으로 남녀 차이가 역시 크게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 여성의 일·학습·이동 시간은 6시간 17분, 여가 시간은 3시간 24분으로, 남성의 일·학습·이동 시간(7시간 52분), 여가 시간(4시간 2분)에 비해 적었다.

반면, 남편 외벌이가구 여성의 돌봄·가사 시간은 5시간 41분, 남성은 53분인 반면, 아내 외벌이가구 남성의 돌봄·가사 시간은 1시간 59분이고, 여성은 2시간 36분으로 여성의 돌봄·가사노동 시간이 크게 나타났다.

<표 5> 맞벌이여부별 시간사용

(단위 : 시간 : 분)

	행동분류별		2019	
			여성	남성
맞벌이 가구	필수시간	수면, 식사, 개인유지 등	11:12	11:11
	의무시간	일	4:37	5:50
		학습	0:03	0:04
		이동	1:37	1:58
		가정관리	2:31	0:39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36	0:15
여가시간	교제, 문화활동, 봉사 등	3:24	4:02	
기타	기타			
남편 외벌이	필수시간	수면, 식사, 개인유지 등	11:34	11:18
	의무시간	일	0:08	5:46
		학습	0:12	0:04
		이동	1:20	2:00
		가정관리	4:05	0:33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1:36	0:20
여가시간	교제, 문화활동, 봉사 등	5:04	4:00	
기타	기타			
아내 외벌이	필수시간	수면, 식사, 개인유지 등	11:17	12:16
	의무시간	일	4:39	0:18
		학습	0:06	0:10
		이동	1:36	1:12
		가정관리	2:19	1:43
		가족 및 가구원 돌보기	0:17	0:16
여가시간	교제, 문화활동, 봉사 등	3:46	8:04	
기타	기타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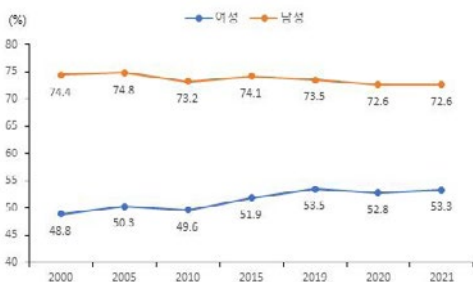
트론토(2013)는 돌봄의 민주화 없이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는 ‘돌봄 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여기서 돌봄을 위한 민주적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돌봄에 대한 필요를 파악하고(caring about), 돌봄에 대한 책임을 맡기로 결정하고(caring for), 돌봄을 제공하며(caring-giving),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부터의 반응을 살피는(care-receiving)등의 돌봄 4 단계와 함께, 돌봄에 대한 분배와 연대를 포함하는 ‘함께 돌봄(caring with)’을 통해서 ‘돌

봄 민주주의(caring democracy)'를 제시한 바 있다(Tronto, 2013:72-73). 남녀의 취업여부, 가족의 생계부양관계 속에서의 시간 사용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돌봄 책임은 많은 부분 여전히 여성에게 맡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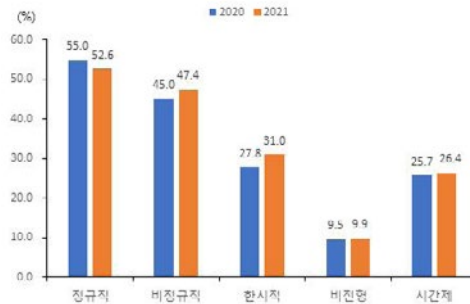
2. 노동사회와 가족, 젠더

여가부는 2022년 통계발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상승하고 남녀 격차는 전년도보다 감소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성의 비정규직 근로 증가폭이 컸다는 점에서 여성의 열악한 노동 여건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등에 의한 M자형 유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림 2>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그림 3> 여성 근로형태별 비율



출처 : 여성가족부(2022)

2021년 여성의 고용률은 20대 후반이 70.9%로 가장 높고 50대 초반(67.1%), 40대 후반(66.3%) 순으로 높은 반면, 35~39세는 57.5%로 상대적으로 낮다. 여성의 고용률은 30대에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그림 4>참조).

<그림 4>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출처 : 여성가족부(2022)

육아휴직 비율에서 남성비율이 증가했다는 점은 유의미한 변화이지만 유연근무제의 경우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202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근로자는 약 1만 7천 명으로, 그중 여성 임금근로자가 약 1만 5천 명으로 나타났다(9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 규모는 증가 추세로 코로나 19의 영향을 받아서 증가하였으나,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소강국면에 들어서면서 남성들의 참여율은 감소세로 전환되었다(<표 6> 참조).

<표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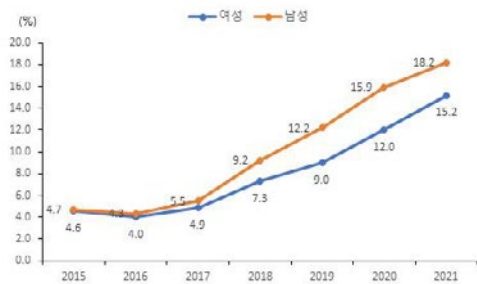
	계	여성	여성비율	남성	남성비율
2015	2,061	1,891	91.8	170	8.2
2018	3,820	3,270	85.6	550	14.4
2021	16,692	15,060	90.2	1,632	9.8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주 : 1) 단축제도 활용 초회수급자수임

2021년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여성 비율은 15.2%로, 점차 증가 추세이다. 유형별로 보면 재택 및 원격근무제(34.4%), 시차출퇴근제(28.7%), 탄력적근무제(24.4%), 선택적근무시간제(22.7%) 순으로 높다. 남성의 유연근무제 활용은 18.2%로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유형별로는 재택 및 원격근무제(30.8%), 시차출퇴근제(30.6%), 탄력적근무제(29.5%), 선택적근무시간제(23.4%) 순으로 높다(<그림 5>, <그림 6> 참조).

<그림 5> 성별 유연근무 활용비율



<그림 6> 성별 유연근무 활용 유형('2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주 : 1) 각년도 8월을 기준으로 함

재택근무는 흔히 유연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방식으로 여겨지지만,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굳건한 사회에서는 오히려 재택근무와 유연 근무가 여성의 일, 돌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기존의 차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업무 시스템에 따라 충분히 합의되고 준비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팬데믹 기간의 재택근무는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급박하게 이뤄진 측면이 크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재택근무는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 돌봄 기관이 문을 닫아 자녀가 가족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시행됐다는 점에서 일반

적인 재택근무 상황에 비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전지원, 차승은, 은기수, 2022). 그렇기에 남성의 유연근무 활용에서 재택근무 비중이 높은 것만으로 남성의 돌봄 부담이 적절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여가부의 '2022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발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이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여성의 의미를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³⁾ 사회구조 현실에서 볼 때, 개별 행위자의 젠더적 측면은 어떤 특정 맥락 속에서 개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많은 자유와 평등을 구속한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살고 있는 세계 역시 이러한 사회구조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개개인의 선택 역시 진정한 '자유'로 의미화하기 어렵다.

그 동안 남성은 사회적 돌봄을 제공해왔다. 남성은 사회를 보호하며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생계부양'을 담당하면 매일의 돌봄 활동으로부터 일종의 '자유'를 획득해왔다. 그러나 남성 1인 생계부양자모델이 약화되어가면서, 남성의 보호와 부양이라는 생산적 측면과 관련된 돌봄 무임승차를 재타협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다. 돌봄이 다시 한 번 공적이며 집합적인 삶의 일부라는 점에서 돌봄의 책임과 분배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Tronto, 2013). 2022년 통계발표에서 여가부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성의 삶'에서 '남녀의 삶'으로의 제목 변경보다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관한 측면일 것이다.

3) 박고은(2022.9.6.), "통계로본 여성의 삶, 남녀의 삶으로.. 여가부의 '여성'지우기", 한겨레신문. 출처:<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57633.html>

참고문헌

- 조안 C. 트론토(2013), 『돌봄민주주의』 김희강, 나상원 옮김, 아포리아
- 전지원, 차승은, 은기수(2022), 코로나 19 시기 재택근무가 남녀 취업자의 일-가족 양립에 미친 영향. 한국인구학, 45(3), 27-50.
- 여성가족부(2022.9.5.),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보도자료.
- 통계청(202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 이은기(2022.9.28.), "윤석열 정부 100대 요직 가운데 여성은?" 시사인 784호. 출처:<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92>
- 박고은(2022.9.6.), "통계로 본 여성의 삶, 남녀의 삶으로.. 여가부의 '여성'지우기", 한겨레신문. 출처:<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57633.html>
- 오세진, 이주빈(2022.10.4.), "여가부, 복지부 산하로? 윤정부, 성평등 정책 버렸다 비판 쏟아져", 한겨레신문 출처:<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61344.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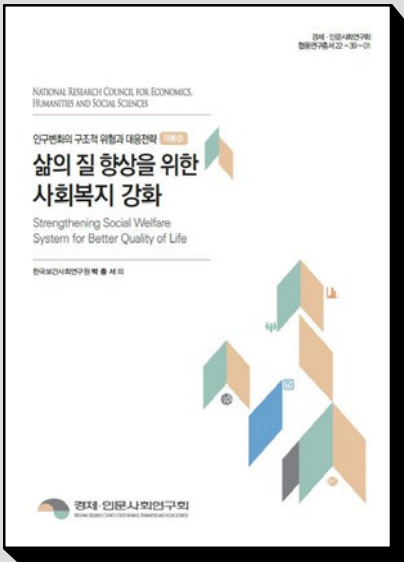
가족커뮤니티
FAMILY COMMUNITY

FOCUS

정책보고서 리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
- 한국노동연구원(2022),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보고서 리뷰」는 정부의 가족관련 정책과제와 사회이슈를 제공하고,
가족정책 사례와 향후 과제를 소개합니다.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각론 ②: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강화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 : 박종서

출판일 : 2022년 6월

종류 : 연구기본보고서

원문출처 : <https://www.nrc.re.kr>

<배경>

인구 감소시대, 인구구조 변화가 개인과 가족에게 미칠 미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

- 한국 사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시대로 접어들었고, 정부는 그동안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지표의 의미있는 개선을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음
- 통계청 추계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인구 변화의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빨라지고 있음. 2021년 추계 결과에 따르면 총 인구의 감소시점이 2016년 추계 결과보다 10년 이상 당겨졌고, 고령자 인구 비율의 전망도 2016년에는 향후 50년간 고령인구 비율 증가 정도가 29.7%였으나, 2019년 추계에서는 그 정도가 32.7%, 2021년도 추계에서는 30.7%로 그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음
- 정부는 200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현재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를 추진하고 있음. 지난 1-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은 5년간 시행할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4차 기본계획의 많은 과제는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음
-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과제를 설정하여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모색 하면서 이를 위해 사회정책적 대응 과제로 ①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②가족 다양성 대응방안,

③고령자 건강과 소득보장 방안, ④복지 인프라 전망과 대응을 정책의제로 검토하고, 각 정책 의제 별로 쟁점사항과 개선과제를 제안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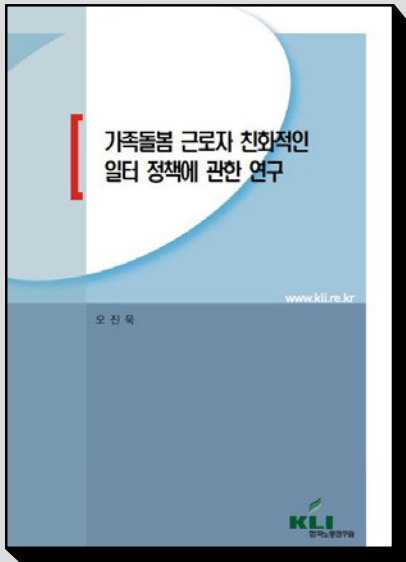
<주요내용>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과제를 ‘아동, 가족 다양성, 고령자 건강과 소득보장, 사회 복지 인프라 수급 전망’으로 구분하고, 각 정책 의제별로 정책 개선과제를 제안함

-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는 서비스 대상에 따라 영유아기와 초등학교령기로 구분해서 각 시기별 서비스 현황과 그에 따른 쟁점을 검토하고 시기별로(영유아기, 초등학교령기) 향후 아동돌봄 서비스 개편을 위한 정책을 제시함
- 인구구조 및 가족 변화에 대응하여 가족 다양성의 측면에서 사회보장과 가족관련 정책과 제도에서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가족 다양성에 대한 횡적 측면에서의 이슈로 가족의 개념, 새로운 파트너십 관계에서 일상의 돌봄과 관련하여 개별법령상의 정비 및 다양한 파트너십 관계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화 과제를 제안함
-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노인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과 함께 고령자의 최근 소득분배 현황과 추이에 따른 정책 방안을 논의함
- 지역별 인구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역별 복지 인프라 공급을 달리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 속에서 지역인구의 지난 20년간 변화와 미래의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인구 변화를 고려한 복지 인프라 공급을 위한 정책의 지향점과 대안을 모색함

<시사점>

- 기존의 가족 다양성 논의가 개인화와 파트너 관계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본 연구는 가족 다양성 이슈를 횡적 측면으로서의 파트너십 관계 다양성 이슈뿐 아니라 기존의 논의에서 미진했던 종적측면-가족다양성 측면에서 세대 이슈로서의 청년 및 출산 양육에 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가족 및 인구관련 정책적 대안을 지역을 중심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본 연구는 지역을 정책적 의제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를 현실로 존재하는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공립시설 공급확대 및 지역별 연령별 수급불일치해소, 지역단위 통합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등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책대안을 제시함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책임 : 오진욱

출판일 : 2022.7.29.

종류 : 연구기본보고서

원문출처 : <https://www.kli.re.kr>

<배경>

팬데믹으로 대두된 가족돌봄과 노동의 혼재 속에서 다양한 가족돌봄의 형태와 돌봄제도의 필요성 강화

- 한국사회의 부양가족 지원은 여전히 일가정양립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가족을 돌보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일터 정책은 미비함
- 2018년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수준조사에 따르면, 가족친화지수는 2018년 40.6점으로 2015년에 비해 4.5점 상승했으나, 유연 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도와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는 전체 11.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함
- 근로자가 노동과 가족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와 노동자의 부양자 역할을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상반된 압력이 공존하고 있는 환경에서, 오늘날 기업이 가족돌봄 근로자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에 관한 논문들을 체계적인 문헌 분석(integrative literature review)을 통하여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에 관한 정책연구의 문헌분석 결과는 국가별, 주제별,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연구동향이 제시됨

- 국가별 발표논문은 주로 캐나다에서 진행되었으며, 맥마스터대학교(McMaster University)의 성, 건강, 그리고 돌봄자 친화적일터(Gender, Health and Caregiver Friendly Workplaces) 소속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가족 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에 관해 연구 과제를 제시함
- 연구주제별로는 크게 세 가지 측면, 1)가족돌봄근로자의 건강과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의 필요성 2)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 일터 정책의 효과 3)팬데믹으로 인한 가족 돌봄과 노동의 혼재양상에 관한 연구임
- 특히 세번째 주제는 가족돌봄 노동의 새로운 노동과 돌봄환경을 주목하는 최신의 주제임. 연구결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적 제도내의 돌봄이 중지되고, 반강제적으로 시행된 재택근무로 인해 가족돌봄과 노동의 부담이 가중되었음을 지적함. 또한 가족돌봄을 무급 노동이라고 생각해볼 때 근로자의 무급·유급 노동의 활동이 한 공간에서 발생하면서, 기존의 기업에서 제시한 가족돌봄 지원체계의 효용성이 줄게 됨. 시공간적인 유연성은 팬데믹 동안 가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무급/유급 노동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중요한 기제라는 점에서 유연근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됨

향후 연구 방향성과 관련해서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제도가 개인, 팀, 조직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리하여 검증할 수 있는 연구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개인 수준에서 자녀양육과 성인 가족구성원의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샌드위치 세대 돌봄자는 비 돌봄자나 자녀 또는 성인 가족구성원만 돌보는 경우, 자녀양육자와 성인 가족돌봄자의 정신적 건강 비교 등 개인의 돌봄 지위에 대한 상황적 검토가 필요

<시사점>

- 포스트코로나, 뉴노멀시대에 일생활균형과 더불어 돌봄의 사회화를 둘러싼 논의가 심화되고 있으나, 노동현장에서는 워라벨의 역습, 돌봄의 여성화로 회귀, 비대면/언택트, 온라인 일상화, 재택근무, 일터와 집의 경계가 허물어진 워라벨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음
- 해외의 연구동향을 살피고 있는 『가족돌봄 근로자 친화적인 일터 정책에 관한 연구』는 돌봄친화적인 일터 정책에 관한 연구, 현재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노동정책의 효과를 진단하는 기존의 논의와 함께, 팬데믹으로 인해 변화된 생활환경, 노동환경에 대한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정책이나 패러다임은 변화되고 있지만, 정책체감도가 제한적이라는 점, 소규모민간기업, 자영업자 등 지역사회 현실과 정책과 괴리감이 크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에 대한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 법, 제도, 정책 등의 도전적 정비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 특히, 돌봄과 노동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돌봄민주주의가 가능한 사례연구, 정책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HK+ Research Unit on Family Community, CNU